

Ihsan Kasım Salihi

가장 큰 행복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mega
basim

저자

이흐산 카숨 살리흐 İhsan Kasım Salihi

1936년 이라크의 Kerkük 에서 출생. 1957년 바그다드 대학교 사범학부(Bağdat Üniversitesi Eğitim Fakültesi) 생물학과 졸업 후 이라크의 여러 도시에서 생물학 교사로 재직.

1979년~1990년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전체 아랍어로 번역. (아랍어 리살레이누르는 먼저 터키에서 출판, 그 후 이집트와 이란에서 출판)

1992년~현재 리살레이누르와 그 책의 저자인 사이드 누르시에 대한 다양한 국제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자로 참석, 현재 여전히 리살레이누르와 관련된 연구 진행 중.

저서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전체 아랍어 번역본

Kendi Dilinden Bediüzzaman

Allah'a Kul Olmak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koreanur2019@gmail.com

가장 큰 행복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İhsan Kasım Salihi 지음

mega
basım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히임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차

머리말.....	9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	13
베디웃자만 사이드 누르시 (Bediüzzaman Said Nursi).....	16
1.송배와 경배.....	19
2.경배와 인간.....	33
3.송배에서의 ‘무능력과 빈곤’.....	40
4.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경배행위가 되는 비밀.....	67
A.의도.....	69
B.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는 행위(İhlas).....	72
C.보는 관점(Nazar).....	80
D.하나님을 숙고함.....	88
5.시험의 비밀.....	103
6.송배와 은둔하는 삶.....	117
7.송배와 기도.....	127
8.송배에서의 걸림돌과 없애는 방법.....	137
A.과시적인 행동.....	138
B.비관함(YEİS).....	149
C.자만심(UCB).....	153

D.오만함.....	156
E.의심.....	158
F.뒷담화.....	162
9.송배와 이슬람의 전달 및 모범임무.....	173
말하는 자가 오로지 진리이다(Konuşan Yalnız Hakikattir).....	180

머리말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은 가장 큰 명예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자신의 힘든 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높은 수준의 학자들이나 성인들의 삶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희망이 없어지며 본인이 하고 있는 경배 행위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내가 그들의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생각 자체가 나 자신에게 무척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무척이나 놀랐다. 왜냐하면 사탄의 속임수나 함정들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바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사탄은 수많은 각각의 다른 속임수들로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여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갖은 노력을 한다. 전혀 생각치 못한 곳에서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아 우리가 하고 있던 경배행위들을 그만두게 하기도 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숭배와 같은 아주 가볍고 달콤한 의무행위들이 우리에게 아주 어렵고 도달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준다. 때로는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 설명하는 교훈적인 이야기조차 상대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사탄은 속삭인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고귀한 예언자의 제자들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는 예언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꾸란이나 하디스 등을 읽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오로지 그들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읽는 것인가? 예언자께서는 우리의 가이드이며 우리가 가는 길의 안내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목표가 된다. 우리 모두 그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사탄이 행하는 ‘희망을 저버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의 개미’의 예(아브라함이 불에 던져졌을 때 개미들이 입에 물을 머금고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조그마한 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하자 개미들이 “우리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 일화)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또한 아주 큰 명예이다. 예언자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을 만나셨으며(미으라즈 일화)¹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우리 또한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어느날 밤 예언자께서 메카 하람성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원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증을 보여준 일화

주님께서는 미으라즈 일화(승천의 밤)로 우리들을 특별히 격려하시며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데 전혀 의심을 두지 않게 하셨다. 제자들, 순수한 학자들, 높은 학자들 등은 그들의 삶의 목표를 그 길을 가는 데 두셨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높아졌고 전 인류의 역사의 하늘에 별처럼 빛나셨다. 어느 누구든 원하면 올라갈 수 있고 그 별들 사이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 목표를 높이 삼는 것처럼 더 높은 곳에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활을 위로 향하게 하여 팽팽하게 당겨야 한다. 지금은 목표가 1이나 2처럼 낮더라도 조만간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그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봤다.

“아들아! 너의 인생의 본보기가 누구냐?”라고 묻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제 자신이 본보기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버지가

“음…. 그렇구나. 나는 알리(이슬람의 4번째 칼리프)가 나의 인생의 본보기였단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다. 너도 너의 목표를 좀 더 높이 삼으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이러한 높은 목표들과 본보기들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숭배생활의 본보기’로 삼으며 주님의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점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싶었고, 또한 어느 누구든 간에 숭배의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간혹 주제와 주제 사이에 또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베디웃자만 사이드 누르시(Bediüzzaman Said Nursi)의 삶에 대해 조금씩 언급하였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예배, 금식, 희사 등의 의무적인 경배 행위들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무슬림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의무 행위들이다. 의무 행위들을 실천한다면 다른 일반 행동들을 좋은 의도로 하게 될 때 그것은 경배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의무 행위들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나머지 시간들은 경배 행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정 반대로 황금같이 높은 가치가 있는 때 분은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이 될 뿐이다.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의무 경배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의 삶의 매 순간을 경배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값어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책으로 인해 ‘숭배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 시킬 수 있다면 무척이나 행운으로 느낄 것이다

이흐산 카숨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

어릴적부터 카톨릭 신자였던 나는 막연히 마더테레사 수녀님같은 삶을 꿈꾸었다. 간호학과를 졸업해 간호사로 근무하다 임용고시에 합격 후 보건교사로 10년 정도 근무하던 중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슬림이 되었다. 알함두릴라. 이슬람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터키로 와서 살게 되었다.

2010년 무슬림이 된 후, 태어나서 지금껏 35년 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 삶의 목표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다. 신앙과 관련된 한국어 책자들을 찾아 읽었고 그 당신 출간된 이슬람 관련 한국어 책이 많지 않아 영어로 된 책도 읽었지만 나의 영어수준은 모국어가 아니었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여전히 목마른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살고 있는가?”,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는가? 계신다면 그 분은 어떤 분이실까?”, “왜 이슬람에선 이토록 규칙들이 많으며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가?” 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의문들이 나의 머리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아버지의 권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펴 순간부터 나의 목마르던 갈증은 해소되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지

기 시작했으며,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된 사이드누르시 학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고 또 그분의 책 리살레이누르를 읽고 싶어졌다.

이 책에서는 무슬림으로써의 신앙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지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다. 아침부터 눈을 떠 밤에 눈을 감기까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아주 자그마한 나 못입 한 개조차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며,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 무슬림들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 믿으며 종교에 상관없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터키에 살면서 심심찮게 들리는 그토록 아름답고 여린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조금이나마 이 책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의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게 추천하신 시아버지 마흐멧 이잇, 터키어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해 가며 틈틈히 교정해 준 남편 파티흐 이잇, 번역본을 꼼꼼히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에 걸쳐 교정을 도와준 김승은 자매, 표지 디자인을 어떠한 보수도 없이 오로지 한 님의 만족을 위해 작업한 이젤 자매, 이 책을 출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예브라 자매, 아랍어 단어, 하디스, 꾸란 등에 대해 물어볼 때 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도와준 필리스 자매 또한 시난파샤 메드레스의 형제들, Mega Basım 출판사의 형제들, 이 책이 출판될 수 있게 도움을 준 셀 수 없이 많은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감

사함을 전하며 그들의 몸짓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길 간절히 바란다.

터키어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끝까지 번역을 마무리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휴메이라 이잇(고화영)

주요 활동

〈창조주를 찾는 것-리살레이누르 말씀들 중(좋은땅)〉교정, 〈대자연 창조나 진화나-리살레이누르 섬광들 중 스물 세 번째 빛(Söz)〉교정, 〈질병!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리살레이누르 섬광들 중 스물 다섯 번째 빛(좋은땅)〉교정, 〈예언자 무함마드를 알아보자(터키 종교부)〉교정, 〈가족에 관한 하디스 40선(터키 종교부)〉번역.

베디웃자만 사이드 누르시

(Bediüzzaman Said Nursi)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Risale-i Nur Külliyyat-ı) 저자

1877년 터키 비틀리스(Bitlis) 주에 속한 누르스(Nurs) 라는 시골(아나톨리아의 동편)에서 태어났다. 아직 6살 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학문(İlme)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떨어져 유학하였다. 그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이해하였으며, 신학 논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를 도처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억력도 비상해 읽은 책을 아주 쉽게 암기하여 꾸란 암송은 물론, 이슬람 문명사를 수놓은 주요 학자들의 저작까지 술술 외었다. 20년이나 걸리는 공부를 불과 3개월만에 마치는 등 학자들조차 그의 범상치 않은 뛰어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는 그의 출중함에 감탄한 한 이슬람학자들로부터 ‘시대에 비할 자가 없는 자’ 라는 의미의 ‘베디웃자만(Bediüzzaman)’ 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 때가 바로 15살의 나이였다.

자신 스스로 과거의 사이드라는 의미의 ‘Eski Said’라 이름 지은 45세 까지의 기간동안 동부지역(Sark)과 서부지역(Garb)에서 여정을 보내며 이슬람 세상과 자신의 국가의 문제들을 스스로 겪

고 몸소 체험한 후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판단하였다. 이에 터키 동부지역에 ‘종교와 과학’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대학교(Medresetüz-Zehra)를 설립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1차 세계대전에 제자들과 함께 자원으로 민병대를 구성하여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였다. 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약 3년간 억류되었으며, 그 후 탈출하여 온 이스탄불에서 올라마 개혁 위원회의 회원으로 임명되었고,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출판했던 후투바트 시테(Hutuvat-ı Sitte: 여섯 단계) 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점령군에 항의하였다. 1922년 후에는 앙카라에 초대받아 그곳에서 새 정부의 장관들에게 이슬람의 상징들(아잔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카라 정부에서 자신에게 제안한 종교부 장관자리를 거절하고, 1923년 5월 앙카라에서 반(Van)이라는 지역으로 가 그곳에서 경배와 꾸란의 사역으로 바쁘게 지냈다.

1925년에 반(Van)에서 지내고 있을 때 부르두르(Burdur)라는 지역으로, 또 그곳에서 바를라(Barla)라는 지역으로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그때부터 시작된 새로운 사이드라는 의미의 ‘Yeni Said’ 라는 이름으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집필한 리살레이누르 작품들에서 신앙과 꾸란의 진리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역활동이 국민들 사이에서 추앙받기 시작하자 반 이슬람 정부에 의해 1935년에 에스키셰히르(Eskisehir)라는 도시에서, 1943년에는 데니즐리(Denizli)에서, 1947년에는 아피온(Afyon)에서, 1952년에는 이스파르타(Isparta), 카스타모누(Kastamonu), 에미르다으(Emirda-

ğı)라는 도시들의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고, 출소 후에도 유배와 연금 생활이 이어졌다.

그에게 허용된 것은 오로지 펜과 종이뿐이었으며 저술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한평생 그 집념으로 완성한 역작이 6000쪽의 대작 꾸란을 주석한 <리살레이누르(Risale-i Nur)>이다. 서슬이 시퍼런 군사 독재 아래 출판과 복사는 불가능했다. 검열을 피하는 길은 오로지 필사뿐이었다. 6000쪽의 책을 필사하고 또 필사함으로써 마을에서 마을로, 이웃에서 이웃으로 퍼져갔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터키 전역에 전파 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에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혀지고있다.

그리고 그는 샨리우르파(Şanlı Urfa)라는 도시에서 1960년 4월 23일 라마단 25번째 날에 병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1. 숭배와 경배

숭배란 매일 매일 밤을 새우며 아침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정해진 경배행위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일까? 오로지 예배, 단식, 회사 등 무슬림에게 정해진 의무 경배 행위들만을 말하는 것일까? 또는 성원이나 예배소 등에서 드리는 경배행위들로 한정지어 지는가? 아니면 숭배에는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는 것일까?

그렇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은 모두가 경배행위이다. 이와 함께 문맹이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비롯해 지식인들, 예언자들과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경배이다.

경배란 딱 정해진 선이 있다거나, 이런것들이다 라고 범위를 정할 수 없다.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맞이하는 일들, 가족들 간에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뿐 아니라 가장 사소한 것들까지 포함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숭배의 사전적 의미: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완전히 관계를 맺는 것 등의 의미를 포함한 아랍어 ‘abd(종)’이라는 단어의 어근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이렇듯 숭배라는 단어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뜻은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로 부터 피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종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송배와 경배는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되었으나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수흐레베르디(Suhreverdi : 이슬람 수피학자)와 같은 학자들은 '종(abd, abid)'이라는 단어의 어근에 더 의미를 두며 송배와 경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배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하면서 금지된 것들로부터 피하는 것 즉 ‘종이 되는 것’이며 송배란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고 그분의 종임을 인식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즉, 송배는 경배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배는 경배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인 것이다.

송배란 삶의 모든 부분과 매 순간에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다. 그에 반해 경배란 예배, 단식, 희사, 선행과 같은 실천적인 행위들이다.

우리는 송배와 일상생활을 따로 구별지어 생각하지 말자.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따로 따로 구별짓지 않는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교회, 성당, 절 등)에 가서 경배행위를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순간 경배행위가 끝나며, 그 장소 밖에서는 즉시 자유롭게 행동한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즉 이슬람에서 신앙인은 성원에서 경배행위를 하고 난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터전 즉 가게, 직장, 집에서도 숭배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 ‘영원한 평화’ 즉 매 순간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도, 여행을 할 때도 바로 숭배를 하는 것이다.

즉 이슬람에서 숭배를 보는 관점은 매우 포괄적이며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 숭배행위는 없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소도 없으며 심지어 자려고 누워 있는 그 순간에도 숭배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잠에서 깬 후 “지금 숭배할 시간이야? 조금만 더 쉰 후 할게” 라고 구별짓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무슬림들에게 숭배행위란 24시간을 포함하며 일 분 일 초 조차도 예외일 수 없으니 말이다. 말하자면 무슬림들의 세상 전체가 바로 숭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에서의 거룩한 밤²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다른 불편한 환경에 처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밭에서, 길에서, 직장에서, 구치소에서 등.. 하지만 “이곳은 숭배를 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라며 피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이 지상의 모든 곳을 바로 예배장소로 보 기

2 꾸란이 계시된 밤으로 어느 날 어느 달 보다 은혜와 축복이 많이 내린 거룩한 밤

때문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경배를 실행할 수 있다. 단지 성원이
나 예배소에서만이 아닌, 모든 장소는 숭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매 순간을 숭배로 인식한 베디웃자만(Bediüz-
zaman)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자신의 주변사람들과 공유하
며 그들 또한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애쓰셨다.

한 번은 경찰들이 그가 지내는 곳을 샅샅이 수색했고, 몇 권의
책과 편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체포
해, 그가 지내고 있던 카스타모누라는 도시에서 앙카라라는 도시로
경찰의 동행 하에 버스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 당시 그의 나이 70
살에 무척이나 편찮은 상태였다. 심지어 타고 있던 버스는 오래된
버스였으며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다.

“운전기사분에게 양해 좀 구해 주겠나, 버스를 잠깐 세우고 승객
들에게 몇 가지 조언 좀 했으면 하네” 라며 그의 옆에 있는 형제에
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운전기사는

“당연하지요. 가능한 장소에 버스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며 버
스를 세웠다. 베디웃자만은 승객들에게

“오늘 밤은 거룩한 밤 이라네. 꾸란을 읽으면 1글자에 10배의 보
상, 라마단에 읽으면 1000배의 보상, 거룩한 밤에는 3000배의 보
상이 있다네. 만약 누군가가 지금 당신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며 말
하길 ‘이 일을 하면 당신에게 금 5개를 주겠네’ 라고 하면 이 일을
하겠나?” 라고 물으셨다.

“당연하지요 선생님”

“이 일시적 세상을 위해 금 5개를 얻으려고 매일 매일 그렇게 애쓰면서,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가?”

“당연히 원하죠”

“그렇다면 지금 꾸란 이클라스장(꾸란 112장) 한 번, 알파티하장(꾸란 1장) 한 번, 바까라장(꾸란2장 225절) 한 번, 이렇게 각각 3번을 읽어 영원한 세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세” 라고 하셨다. 그 후 운전사와 여행객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만족하시기를!” 이라고 하며 꾸란을 읽기 시작했다. 베디웃자만은 버스에서조차 시간을 값어치 있게 하시며, 축복받은 밤으로 바꾸신 것이다.

순수한 의도는 숭배행위를 더 빛나게 한다.

숭배란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의도로 해야한다. 단식을 예로 들 수 있다. 단식은 아주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단식을 통해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즉 장기들이 쉴 수 있어 편안함을 주는 등 육체에 많은 이점이 있다.

만일 살을 빼기 위한 의도로 단식을 하는 사람과 함께 수후르(라마단 단식 중 금식 전 새벽식사)하기 위해 일어나고, 단식을 시작한다고 치자. 그렇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건강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바로 이것은 숭배행위가 아니라 단지 굶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단식을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것은 바로 숭배가 된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좋아지게 하기

도 나빠지게 하기도 하시며 장기들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유럽의 어떤 학자가 “인간은 하루 종일 에너지를 축적한다. 따라서 편안해지기 위해 이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땅바닥에 대면 이 에너지는 몸에서 나가게 되며 바깥으로 버려지게 되며 결국 편안해지게 된다. 따라서 당신도 이것을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니

“바로 이것들이 예배의 효과이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건강을 얻게 됩니다. 당신들도 건강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옳은 말일까? 옳을지도 아니면 옳지 않을지도...

그러나 샤즈다(예배할 때 절을 하는 것)를 할 때 이 건강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샤즈다를 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한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숭배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가 몸 안의 과잉된 에너지를 버리기 위한 생각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숭배행위가 될 수 없다.

이를 설명하는 형제, 자매들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예배의 건강적 측면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숭배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다

음과 같이 말한다.³

“송배행위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것(İhlas)이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그 목표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이다. 즉 오로지 내세를 위해 행하는 것이다. 이 경배행위로 인해 원래 목표하지는 않았지만 물질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송배로 간주된다. 이는 오히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송배행위를 더 하게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경배나 찬미를 세상의 이득을 위해 한다면 행했던 일부분은 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경배가 헛되게 되며 아무런 결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 샤희 낙시벤디(Sahi Nakşibend : 이슬람 수피학자)의 백 가지 이상의 특별한 효과가 있는 에브라디 쿿시에(Evradı Kudsiye : 기도집) 또는 천 가지 이상의 특징이 있는 제브세눌 케비리(Cevşenul Kebiri : 사도 무함마드께서 하신 기도 모음집)등의 기도들을 읽는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며 볼 수도 없으며 볼 만한 권리도 없다. 왜냐하면 그 효과들은 기도들을 읽는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도들을 할 때 그런 혜택이나 특징들을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효과들은 그것들을 바라며 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결과들이다. 그런 효과들을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면 순수한 의도를 상하게 한다. 더군다나 경배행위에서 벗어나며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3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섬광들(Lemalar), p.228, Sözlər 출판사

그러나 이처럼 가치가 있는 기도를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도의 효과들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과 내세를 위해 열렬하게 그 기도를 읽는다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명망 있는 이슬람 학자들 또는 세레프 이 살리힌(Selef-i Salihin : 이슬람 초창기의 학자들)이 전달한 효과들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의심을 하거나 더군다나 부정하기도 한다.

그렇다. 순수한 의도로 기도를 읽지 않는다면 신문을 읽듯이 읽게 되며 기도의 결과를 얻지 못 할 것이다. ‘오늘밤 사도님을 꿈에서 보고싶다’ 라는 의도로 기도를 읽지만 보지 못하는 것처럼...

숭배에서는 의도가 무척 중요하다. 이 내용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다른 피조물들도 숭배를 하는가?

숭배란 오로지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인간만이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새, 곤충 등의 동물들 각자가 특별한 숭배행위를 하는 것처럼 나무, 꽃 등의 식물들 또한 숭배행위를 하고 있다.

오로지 생명이 있는 존재들만 숭배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돌, 흙, 태양, 별… 모든 생명이 없는 존재들도 숭배를 하고 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숭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이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 바로 꾸란에서 알 수 있다. 몇몇 꾸란 구절에서 아래와 같
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하나님은 산천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아침과 저녁으로 합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노라.⁴

하늘과 대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새들은 날개를 펴 찬미하고 있음을 그대는 보지 못하느뇨.
모든것은 제 스스로 경배하고 찬미함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⁵

칠천과 대지가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니 영광으로 그분을 찬미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그들의 찬미를 알지 못하나,
실로 하나님은 자비와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⁶



4 꾸란 사드장 38장 18~19절

5 꾸란 누르장 24장 41절

6 꾸란 이슬라장 17장 44절

위 꾸란 구절들에서 아주 분명하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미하고 있음을, 즉 숭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각이 없는 생물들과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미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것을 실천한다면 그는 바로 숭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행한다면 그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이렇게 설명한다.⁷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 보게나!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완벽하게 의무들을 실행하며 숭배를 한다. 일부는 이성이 없으며,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이성적으로 또는 질서 있게 직무들을 실행한다. 즉 모든 피조물들은 마부드-빌hak(Mabud-Bilhak : 숭배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또는 아미르 무틀락(Amir Mutlak :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숭배를 한다.”

7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편지들(Mektubat), p.562, Sözlcr 출판사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모두에게 각각의 임무들을 부여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전혀 미흡하지 않게 완전한 복종으로 실천한다. 예를 들면 태양은 자신에게 부여된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수천년간 같은 임무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는 지쳤어. 이제는 햇빛과 열을 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의무들을 지속한다. 과수들은 과일을 제공하며, 꿀벌들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꿀을 만드는 것을 지속한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나열하면 볼 수 있듯이 그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복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그들을 창조하신 분을 숭배하며 찬미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꾸란 구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것을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⁸

“꽃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수와 예술을 보여주며 몸짓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찬미하고 있듯이 이 지상의 정원도 커다란 꽃과 같다. 무척이나 큰 찬미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들을 지상의 언어로 찬미한다. 과일이 조화(하모니)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공표하고 찬미하는 것처럼, 커다란 나무의 나뭇가지, 나뭇잎, 꽃 등의 모든 부분들로 전시하는 임무를 통해 숭배를 하고 있다. 나무의 단어들이나 나뭇잎, 과일, 꽃이 하나님을 찬미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넓은 하늘이라는 바다의 단어들이나 태양, 별들, 달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한다.”

8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말씀들(Sözler), p.691, Sözler 출판사

즉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들은 몸짓으로 자신들의 창조주를 찬미한다. 왜냐하면 작품이 존재하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술가의 특징들의 완벽함을 보여준다.

예를들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한 어떤 것을 발명했다면 그 발명품을 본 사람들은 그 발명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발명품을 본 사람들은 그 발명가를 보지 않더라도 그 전문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발명품은 몸짓으로 그 전문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전문가가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들만의 몸짓으로 우리의 주님을 설명하며 그의 특징들의 완벽함을 알려주고 있다. 즉 “우리를 만든 창조주의 특징들은 완벽하며 그에게 어떠한 결점도 없으며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라고 하며 그들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미한다.

어떤 성을 예로 들어보자. 무척 예술적이며 섬세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는 어떤 궁전이 있다고 치자. 궁전에 있는 모든 돌 각각 하나 하나에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 궁전 안의 경치나 풍경은 계속해서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사람이 옷을 갈아 입는 것처럼 그 궁전의 벽은 각각 다양한 색깔로 바뀌고 그 벽에는 각각의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 섬세한 문양을 주의 깊게 보면 그 궁전의 전체 풍경이 보인다. 그리고 궁전 안의 장식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아름다워진다. 매시간 최상의 음식들로 식탁이 차려지며 치워지고 그

음식들은 아주 맛있으며 식욕을 돋구는 것들… 등

이처럼 완벽한 궁전을 본 사람은 이 솜씨 좋은 전문가에 반하며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소!” 라고 할 것이다. 이 궁전은 자신의 몸짓으로 그 전문가가 얼마나 솜씨가 좋으며, 지식이 많으며, 숙련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 웅장한 세상은 그 궁전과 같다. 달과 태양의 조명들, 별들과 시간의 촛불들은 한가지의 실 또는 줄이며 그 위엄 있는 창조주께서 매년 다른 세상을 그곳에 매달아 보여주신다. 그분은 새로 온 세상의 수천 개의 피조물들의 모양들을 바꾸시며, 완벽하게 정리된 체계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 지상을 거대한 식탁처럼 매 가을마다 수만 가지 예술품으로 장식하고 각각 다양한 종류의 은총들로 가득 채우신다. 상당히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지만 혼란스럽거나 어수선한 예술품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무척이나 질서 있고 정리된 다양함으로 서로 구별되어진다. 다른 것들도 이처럼 비교해 본다면 이 세상이라는 궁전의 창조주께서 얼마나 완벽하신지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⁹

그 궁전은 ‘완벽함의 언어’로 창조주를 찬미하고 있다. 완벽한 예술품을 만드신 전문가의 특징들의 완벽함을 지각이 있으며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여준다.

9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말씀들(Sözler), p.96, Sözler 출판사

이를 종합해 보면 완벽한 체계와 질서 속에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인간은 의식하며 숭배를 한다. 경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듯 경배란 무척이나 광범위하다. 의식이 없는 피조물들은 자신의 한정된 삶의 범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경배를 행한다. 이것의 찬미들은 천사들을 대표한다.”¹⁰

10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말씀들(Sözler), p.691, Sözler 출판사

2. 경배와 인간

우리는 왜 경배를 하는 것일까? 경배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며 그 부담감은 인간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을 짊어 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인간에게 더 다양한 능력들을 부여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은 이성이라는 은총을 부여 받아 무척이나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주위의 그 어떤 피조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특징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임무 또한 다름을 의미한다.

인간이 무척이나 우수하다는 관점에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능력들을 인간에게 아무 이유없이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에게 물어보고 나를 창조했어?” 또는 “나는 부담을 지기 싫어. 동물처럼 그냥 편하게 살거야” 라며 그 주제에서 회피하고 싶어한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숭배행위로부터 멀리 벗어나거나, 경배행위들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덥거나 추운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편히 있는 것이 더 편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금식을 하며 배고픔을 느끼기보다는 원하는 시간에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해!’ 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좁은 창문

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경배 행위들을 실천하는 것이 불편함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자체에 모순된다. 이렇게 높은 하드웨어, 장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처럼 사는 것은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수준에서 낮아지는 것은 물론 동물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을 의미한다.

동물은 과거는 물론 미래도 없다. 굶을까봐 걱정하지도 않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다. 오로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저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그 위험한 상황이 지나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삶을 살아 간다. ‘내일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라며 걱정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창조주께 감사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성과 이해하는 능력 같은 특성이 인간을 모든 상황으로 이끈다. 한편에선 어제 생긴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다른 한편에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를 옥죄어 온다. 바로 앞에 죽음 같은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말이 되는가?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이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 가고 있음을 보면서도 ‘나는 동물처럼 살아갈거야’ 라고 하며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우리 또한 똑같은 문으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편안하게 앉아서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를 그 문앞으로 이끄는 매 초, 매 분, 매 시간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는 게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 편안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근심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인간의 수준 높은 하드웨어, 장비는 ‘동물처럼 살지 않을 것’ 또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의 창조주께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어떤 특징으로 인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 무능력하며 나약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인간을 ‘지상의 대리인’ 즉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행동하는 대화 상대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 꾸란에서 ‘위탁물’ 이라고 정의하는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그 특징이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꾸란의 구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대지와 산들에 위탁물을 보였으나
그것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으니, 두려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였으니.¹¹



라고 정의하셨다. ‘위탁물’ 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의무들, 부담들,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이 꾸란 구절을 해석할 때 이 ‘위탁물’이라는 단어를 어떤 한 측면에서 ‘자아’ 즉 ‘자만심, 자기 본위’ 등으로 해석하며, 자아에 숨겨져 있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²

“하늘, 땅, 산이 짙어지는 것으로부터 피하고 무서워하는 위탁물의 다양한 관점 중 하나는 바로 ‘자아’이다. 그렇다. ‘자아’란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빛나는 천국의 나무(tuba)와 함께 공포스러운 지옥의 나무(zakkum¹³)의 씨앗이다.”

그렇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아’라는 감정을 잘 알고 잘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잘 사용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무척 높아지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께 선택된 손님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반대로 이용하는 경우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즉 ‘자아’에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 다다를 수 있는 씨앗이 숨겨져 있다. 이 씨앗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즉 어떤 것을 땅에 뿌리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땅을 뚫고 나올 것이며, 자랄 것이다.

오로지 두 가지 길이 있으며 다른 선택은 없고, 한 곳으로만 갈 수 있다. 그 선택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12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말씀들(Sözler), p.725, Sözler 출판사

13 자꿈: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라는 나무로 매우 쓰고 불쾌하며 자극성 있는 나무

‘자아’를 올바르게 사용한 좋은 예로는 예언자들, 순수한 학자들 또는 높은 성인들이 있고, 좋지 않은 예로는 역사에서 재앙의 원인이 된 니므롯¹⁴, 파라오 등의 억압하는 자들이 있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따라가면서 자신 또는 남들을 억압하기 위해서일까?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일까? 숭배라는 옷의 책임을 부여해 꾸란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상점에 들러 어떤 전자 제품을 산다고 치자. 그 제품의 박스 안에 사용 설명서를 발견하였다. 왜 사용 설명서를 그 안에다 넣었을까? 그 제품을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물론 사용설명서 없이도 사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금방 고장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특징을 모르고 사용하게 된다.

바로 ‘꾸란의 명령’이라고 할 때 일부 사람들은 무서워한다. 마치 꾸란이 인간을 새장 안에 가두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꾸란은 우리를 위한 사용 설명서이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14 니므롯 : 기원전 24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복자, 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가장 강한 신적인 존재로 봄.

우리에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꾸란에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만약 우리가 숭배의 범위 안에서 꾸란의 명령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더욱 빛날 것이다. 게다가 오로지 60년, 70년이라는 일시적인 시간에 제한되지도 않으며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 먼저 꾸란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하늘의 책(구약, 신약 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예언자들, 순수한 학자들, 성인들, 높은 지식을 가진 학자들, 진리를 찾는자들 등...

진실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실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욱 아름답게 살며 꾸란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올바른 것임을 자신 스스로 이해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징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악행의 성향도 주셨다. 그것들을 ‘자아’에 집어 넣으셨으며 그곳에 씨앗처럼 심으셨다. 씨앗을 자라게 하기 위해 물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는 그 씨앗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정신적인 물이 필요하다. 만약 그 물을 ‘욕구’에게 준다면 그 씨앗은 나쁘게 싹틀 것이다.

사실 인간은 선행을 하는 것을 더 행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조상 선행에 더 알맞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선행을 하게끔 명령 하신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한 그 악행의 씨앗은 아직 싹이 나지 않은 다른 선행의 씨앗들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

‘욕구’로부터 온 물을 잠그고 올바른 쪽으로 이끈다면 악행의 씨앗들은 서서히 썩을 것이며, 선행의 씨앗은 그 기회를 잡아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행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선행의 관점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은 한정적이다. 이에 반해 악행과 파괴자의 관점에서 보면 무척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 집을 예로 들자면 하루만에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지만, 한달안에 지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이처럼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바로 꾸란과 순나들이다.

3. 승배에서의 ‘무능력과 빈곤’

승배에는 자신의 무능력과 빈곤함을 스스로 보고, 결점들을 하나님께 보여준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모든 경배행위들의 뒷배경에는 이러한 점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자신의 결점과 필요한 것들을 알 때 경배행위들의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자. ‘무능력’, ‘빈곤’은 무엇인가?

‘무능력’이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힘이나 능력도 없음을 알고 느끼는 것이며, ‘빈곤’이란 아주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다. 아주 작은 조그마한 정원에서부터 아주 넓은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러나 영원하지 않으면 천국이라 하더라도 그 맛을 오랫동안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영원함을 원한다.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되지 않을 세상을 원한다. 왜냐하면 빈곤으로 인해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들이 매우 많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에 빠뜨릴 만한 엄청난 적들도 수없이 많다. 그렇다면 어떤 적들이 있단 말인가?

우리의 이성과 양심은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는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잠재적인 적이 되거나 재앙이

될 수 있다. 남극에서 얼음이 녹는 것이 적도에 있는 인간의 평안함을 깨뜨려버릴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위협하는 거대한 천체에 대항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3000배 확대해야 가까스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세균에 대항할 힘조차도 없어 꼼짝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즉 거대한 것은 물론 아주 작은 것에도 대항할 어떠한 힘이 우리에게겐 없다. 무척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힘도 없다. 이 짧은 생애를 위협하는 그리고 평화를 깨뜨리려 하는 모든 상황 등 수많은 적들이 사방에 깔려있다. 즉 이처럼 가만히 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끝없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적들에 맞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능력’과 ‘빈곤’ 뿐임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면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즉 ‘지혜’의 범위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전혀 이것들을 해결하거나 맞설 힘도 능력도 없으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봅시다. 무능력하니 아무 것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할까? 이 주제와 관련해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⁵

“신앙은 유일성에 대한 확신(tevhid)으로, 유일성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teslim)으로,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의탁(tevekkül)으로, 의탁은 현세와 내세의 행복으로 이끈다. 하지만

15 리살레이누르 23번째 말씀(23 Söz), p.340, Rnk 출판사

오해하지 말기를. 하나님에 대한 의탁이 원인이 되는 행위(인과관계)를 전적으로 거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인이 되는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장막임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몸짓으로 하는 기도로 받아들여져, 원인이 되는 행위들의 결과를 오로지 전능하신 창조주에게 바라며, 그 결과들이 오로지 그 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하지 않는 자들의 예들은 아래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허리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커다란 배에 표를 사 승선하였다. 한 사람은 배에 오르자마자 무거운 짐들을 바닥에 내려 놓고 그 위에 앉아 주위를 구경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무지하고 오만하여 무거운 짐들을 바닥에 내려 놓지 못하였다. 앉아 있던 사람이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편하게 쉬지 그래” 라고 하자

“아니! 내려놓지 않을거라네. 그렇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네. 나는 강해서 내 재산을 허리에, 머리에 지고 보호할 수 있다네” 라고 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길,

“우리와 자네를 들어 이동시키는 이 안전한 왕의 배가 더 강하다네. 더군다나 더 잘 보호한다네. 만일 당신이 짐들을 머리에 지면 오히려 머리가 빙 돌아 짐들과 바다에 빠질지도 모른다네. 더군다나 자네는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게 될걸세. 자네의 그 굽은 허리와 어리석은 머리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 짐들을 지탱할 수 없을걸세. 선장 또한 자네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 미친 사람을 보게

나’라며 자네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감사하기는커녕 우리의 배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웃고 있으니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할 것이 라네. 또한 당신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네. 왜냐하면 지각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의 행동은 자만심을 통해 약함을, 오만함을 통해 무능력함을, 과시를 통해 위선과 굴욕을 보여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네. 보게나 모두들 자네를 보고 비웃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불쌍한 사람은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짐을 바닥에 내려 놓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고생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비웃음으로부터 면하게 되었다네”라고 말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사람이여! 당신 또한 이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그래야 온 세상에 구걸하거나, 모든 사건들 앞에서 떨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거나,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들거나, 내세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감옥같은 세속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자기자신을 ‘결점이 있는 사람’ 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이 깊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이 존재함에 없음이, 자신이 없음에 존재함이 있다. 즉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하며, 있음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면, 이 세상만큼의 없음이 암흑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존재함을 신뢰하며 실제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을 잊어버린다면, 반딧불이의 불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존재함의 빛이 끝이 없는 존재하지 않음과 헤어짐의 암흑 속에 있게 되며 결국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신뢰하기를 그만두며, 자신의 자아가 독립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며 실제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의 징후를 비추는 거울임을 아는 순간, 모든 피조물들의 끝이 없는 존재함을 얻게 된다.”¹⁶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 10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기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치자. 전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10개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쉽다. “이 손가락으로 이것을 누르고, 저 손가락으로 저것을 누르고…” 하지만 이미 독수리 타법으로 아니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 사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이미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두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사용했던 방법을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는 10개 손가락을 사용하여 치는 것을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 하세요..!” 라고 시작

16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말씀들(Sözler), p.648, Sözler 출판사

할 때 이야기한다.

인간은 자신이 힘과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알아! 나도 읽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자아가 말한다.

사실 모든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베디웃자만 (Bediüzzaman)은 ‘비스밀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렇다. 이 표현은 그토록 축복받은 보물이며, 당신은 이 보물로 인해 무한한 무능력과 자신의 빈곤함이 끝없는 권능과 자비에 연결된다. 또한 그것들(본인의 무능력과 가난함)은 이 표현으로 인해 자애로우시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중재자로 변한다. 그렇다. 이 표현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군에 입대하여 나라의 이름으로 행동하며 어느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법의 이름으로 또는 나라의 이름으로’ 라며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것에 견딜 수 있다.”¹⁷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스밀라와 자신의 무능력과 빈곤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비스밀라! ‘그분의 이름으로’라는 뜻이며, ‘명백하고 분명하게 내 자신의 이름은 없으며 모든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곳에 자기 자신은 없다는 말이다. 비스밀라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 자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자기 자신은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

17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말씀들(Sözler), p.14, Sözler 출판사

고 그분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함을 의미한다.

“내가 한다” 라고 하거나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아프면 우리는 침대에서 한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손가락 하나조차 들어 올릴 힘도 없게 된다. 그럼 도대체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힘이 하나도 없다니!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꾸란에서 114번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또한 이슬람의 상징인 비스밀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진리들이 숨겨져 있다. 이 진리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숭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자기 자신의 결점을 아는 것이 숭배를 위해 왜 중요한가?

줄라이카¹⁸ 는 예언자 요셉(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을 방으로 불러 단 둘이 있게 되자 방 문을 잠그며 유혹하였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음탕함을 뿌리치며 문을 향해 가자 그녀가 그의 등뒤에서 그의 옷을 잡아 옷을 찢어버렸다. 그 순간 그녀의 남편과 그의 친척들이 방으로 들어와 그 둘을 보았고, 그녀는 바로 그를 탓하며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나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잘못으로 돌렸으며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¹⁸ 줄라이카 : 예언자 요셉의 집주인이며 고관의 아내.

되었다. 이 사건이 있는 뒤 사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상류사회의 부녀자들은 그녀에 대해서 속닥거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그녀는 상류사회의 부녀자들을 모두 초대해 그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여인들이 자신들의 앞에 있는 과일의 껍질을 깎고 있을 때 요셉을 불러 여인들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 그를 본 여인들은 그의 잘생긴 외모에 매료되어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베어버렸다. 그러자 그녀가 “내가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고, 그녀들 모두는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였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네요. 그는 인간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이에 요셉이



**주여! 당신께서 저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녀들에게 유혹되어 어리석은 자 중에 있게 되나이다.¹⁹**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꾸란은 바로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이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예언자조차도 자신에게 결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며 그 때 어떻게 하나님께 피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¹⁹ 꾸란 요셉장 12장 23~33절

위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욕구에 넘어간 사람은 줄라이카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요셉(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자기 자신의 욕구에 죄를 묻고 있다. 자신 자신의 나쁜 욕구들로부터 주님께 피신하며 “그는 그렇게 잘못했다” 라거나 “그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주인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자신의 욕구에 이끌려 어리석은 자 중에 있게 되나이다” 라며 기도를 한다. 그리고 다시금 자기 자신의 욕구에게 죄를 돌린다.

주님께서는 같은 구절에서 요셉에 대해 5번 ‘Muhsin’²⁰ 이라는 단어를 쓰시며 그의 순결함을 강조한다. 예언자 요셉과 관련해 마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의심조차도 이렇게 막아버리신다. 예언자 요셉이 겸손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우리 또한 예언자 요셉(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처럼 우리의 욕구가 깨끗하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즉 “잘못과 실수는 나에게” 라고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아야 한다. 승배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

20 Muhsin : 선을 행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결점이 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모범이 되는 분들의 예를 보면서, 그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예언자의 짧은 이야기에서 처럼 우리의 욕구의 잘못을 보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자. 우리보다 약 40년 전에 살아계셨던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가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Mesnevi-i Nuriye 라는 부분에서 이것과 관련해 아랍어로 다음과 같이 예를 드셨다.

물 속에 비친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자신의 방향과 거꾸로 보인다. “알게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잊은 채 타인을 보면, 진리들이 거꾸로 보인다네.” 라고 말한다. 이것과 관련해 아랍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당신 자신을 잊은 채 다른 사람을 본다면 진리들이 거꾸로 보이며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반대로 보일까? 도대체 어떠한 진리들이 반대로 보인다는 말인가? 예를 들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착각한다. 자기 자신을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착각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오만함이 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이 형제는 왜 그렇게 하지?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무지함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무지하게 본다. 자기 자신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우리 자신에게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아주 작은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무지한 사람의 잘못을 찾기 시작한다. 그렇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자아로부터 나온다. 그 때 용서를 빌거나 구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아의 나쁜 점을 오로지 돈에 대한 욕심, 음탕한 생각, 과도한 음식 섭취 등으로 생각한다. 이것들도 당연히 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나쁜 점들도 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특성도 있다. “어떻게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일 수가 있겠어!” 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내면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부분도 숨겨져 있다. 말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면에 이러한 생각이 숨겨져 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삼촌인 에부탈립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여전히 쿠레이쉬의 지배계급들은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압과 핍박을 더욱 가하기 시작했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양아들인 제이드와 함께 타이페라는 지역에 갔다. 하지만 타이페 사람들은 그를 무척 나쁘게 맞이했다. 비웃으며 모욕을 줄 뿐만 아니라 돌까지 던졌다. 제이드가 몸으로 가로막으며 방어했지만 비처럼 쏟아지는 돌을 완전히 피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들은 제이드의 머리와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다리에 집중적으로 돌로 공격을 가했다. 피를 흘려가며 겨우 겨우 Batn-1 Nahl²¹에 도착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길가의 한구석에 있는 포도밭의 포도 나무그늘 아래서 앉아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로 무척이나 힘든 상태이었다. 메카 불신자들은 그를 죽이려 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돌을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 기댈 수 있단 말인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힘들 때마다 달려가 의지하며 고통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랑하는 부인 카디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메카의 불신자들의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의지할 수 있는 삼촌인 에부탈립도 역시 돌아 가셨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란 말인가! 이제 그를 누가 보호하며 그를 누가 도와준단 말인가?

하지만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쿠레이쉬

21 Batn-1 Nahl: 메카와 타이페 사이에 있는 지역

와 타이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맞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에게 오로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 높으신 분 앞에서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

“나의 주님!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이 상황을 당신께 보여 드리며 당신에게 알립니다.

자비로운 자들 중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두가 경멸하고 무시할 때, 어떠한 방법도 없는 사람들의 주님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나의 주님도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당신께서는 나쁘며 뻔뻔스러운 적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 당신의 분노를 받지 않게 하소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서하심은 제가 그런 고난들을 겪지 않을 만큼 무척 관대하십니다.

나의 주님! 당신의 분노로부터, 당신의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부터, 암흑을 밝히며 현세와 내세를 구원받게 하는 당신의 신성한 빛으로 피난합니다.

나의 주님! 당신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주님! 모든 힘과 모든 권능은 오로지 당신과 함께 할 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이 기도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음을 말로 표현 하셨다. 다른 이러저러한 것부터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다. 처음엔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조차 거부당했던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얼마 후 이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게 되셨고 적들은 전패하였다.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도님의 인생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셨음과 관련된 수많은 예가 있다. 이처럼 ‘무능력함’, ‘빈곤함’ 속에 숨은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 있다.

꾸란에는 예언자 노아(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기도가 있다. 그의 생애와 그의 삶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하셨음을 우리 모두 많게든 적게든 알고 있다. 그는 그의 민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때가 가진 모든 힘과 전력을 다해서 애썼다.

“

오십년이 모자란 천년을.²²

”

이라고 꾸란에서는 말하고 있다.

22 꾸란 안카부트장 29장 14절

“

주여 저는 밤낮으로 저희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였습니다.²³

”

즉 950년간 밤낮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 하셨는가?

“

주여 제가 허약하오니 저를 도와주소서²⁴

”

즉 “제가 무능력함을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해 이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라며 예언자 노아께서 기도를 하시고 난 후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꾸란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문들을 바로 열고 비를 내리게 하여

대지의 우물 속으로 흐르게 하니

그 물은 이미 정해진 대로 만나더라.

하나님은 그를 널판지와 못으로 만들어진 방주에 태우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떠 있었노라.

그것은 불신당한 노아에 대한 보상이라.

23 꾸란 노아장 71장 5절

24 꾸란 까마르장 54장 10절

하나님이 이것을 예증으로 남겼으니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자 있겠느뇨.
나의 응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²⁵



그토록 마음속으로 우리나라와 진심으로 드린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대지의 우물이 흐르게 하였으며 하늘과 땅에서 흐르는 물을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응벌과 경고를 내리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위의 꾸란 구절에서 예언자 노아(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기도 후 “바로 열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늘의 문들이 바로 열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대지에서는 어떻게 됐나? 대지에서도 우물속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만약 꾸란에서 “펫젤나 민 엘 아르디 우유네(feccerne'l-arda uyune)” 라고 했다면 이곳, 저곳 각각의 모든 곳에서 즉 많은 곳에서 열린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꾸란에서 “펫젤넬 에르다 우유네(feccerne'l-arda uyune)” 라고 표현한다. 즉 지구 자체가 물이 나오는 원천이 되어 끓여졌다 라고 한다. 즉 기도가 받아들여졌음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치 자카리아(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머리의 일부분이 하얗졌습니다.” 가 아니라 “머리 전체가 하얗졌습니다(머리는 백발이 되었나이다)”²⁶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

25 꾸란 까마르장 54장 11~16절

26 꾸란 마리아장 19장 4절

즉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님을 말한다. ‘나의 힘과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다. ‘주님! 오로지 힘과 능력은 당신에게만 있으며 당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불신자들에게 대항할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다. 즉 그에게 완전하게 의지하고 기댈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진실되고 올바른 경배임을 의미한다.

예언자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본인들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으며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셨는지 우리에게 예로 알려주고 있다. 바로 이것처럼 이슬람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의 삶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그분이 쓰신 리살레이누르(Risale-i Nur)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무능력함을 설명한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은 무척이나 대단하다” 라고 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의무를 주셨다. 그러니 이제부터 해야겠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의 진실된 이흐라스(İhlas :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으로 인해, 명예와 영광을 구실로 나의 욕구를 쓰다듬는 과시적인 행동으로부터 나를 어느정도 구했습니다. 인샬라! 여러분들은 완전한 이흐라스(İhlas)를 갖게 되며, 나 또한 이흐라스(İhlas)를 갖게 될 것입니다.”²⁷

27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섬광들(Lem'alar), p.271, Sözlör 출판사

“전능하신 창조주께 너무도 감사하게도, 나의 자아가 내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결점들을 내 자신이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의지는 내 자신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또는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수줍음으로 리살레이누르의 축복받은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성실됨과 이흐라스(İhlas)로 내 자신을 용서받고 그들의 정신적인 중재로 나의 죄들이 속죄 받는 것입니다.”²⁸

“나 또한 이 꾸란의 강의를 같이 받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빈곤하므로 이 성스러운 진리들을 가장 먼저 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나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욕구의 숨겨진 많은 결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²⁹

이것들은 모두 참고할 예이며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다. 하지만 우리는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이 그냥 겸손해 보이려고 이렇게 말했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인간성과 욕구의 본성을 본다. 즉 예를 들자면 의사는 스스로 조심한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만큼 우리의 몸에 이로운 것, 해로운 것들을 잘 알

28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에미르다으 편지들(Emirdağı Lahikası), p.75, Sözlər 출판사
29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에미르다으 편지들(Emirdağı Lahikası), p.522, Sözlər 출판사

지 못하므로 앞에 뭐가 있든 간에 먹는다. 바로 이처럼 베디웃자만(Bediüzzaman)도 마찬가지다. 그도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도 그러한가?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두들 스스로가 가장 힘이 있다고 느낀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느낀다. 우리에게 안내자로서 보내어진 사람들 중 가장 명예로우신 분인 예언자들조차도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한다. 내가 안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켜 세우지 않는가? 끝이 없는 힘과 능력에 의지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힘에 의지한다는 게 과연 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분의 자비와 권능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필요하다. 그 끝이 없는 권능과 자비에 의지하기 위해 모든 ‘자만’,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그분에게로 향해 그분에게 피난해야 한다.

몇 년 전 터키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들 중 한 곳의 대표와 회의가 있었다. 회의 중 회사 대표에게 물어봤다.

“당신 회사의 성공요인이 무엇입니까?”

간략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다.

“우리는 항상 낙함과 결점을 봅니다. 잘못한다고 생각해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성공 요인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까?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당연히 성공해야지”

“내가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된다니까!”

“우리는 마살라!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내가 일을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새로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 일의 포인트는 무능력함과 빈곤함을 느끼고 아는 것이다. 낙함은 의지할 수 있는 강한 곳을 찾는다. 빈곤함 또한 마찬가지다. 항상 원하는 사람은 어느 날 얻지 않겠는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빛

천식을 앓고 있는 조카가 있다. 간혹 들이마신 숨을 다시 내뿜기 힘들어 한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얼굴색이 파랗게 변하고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평소에는 1분에 20번 호흡을 들이 쉬고 내쉬는데 그렇게 못하니 여간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지 모른다. 들이마신 호흡을 다시 내쉬지 못하니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 그렇

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지 지각하지 못한다. 호흡을 내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그 어떤 것도 은총이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빈곤한지 바로 지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놀라기도 하고 또 가끔 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들이 끊어지면 바로 그때서야 그 값어치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무능력과 빈곤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더군다나 무능력과 빈곤이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무능력과 빈곤은 바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부족함은 다리역할을 하여 우리를 바로 주님께 연결시켜 준다. 끝이 없는 무능력을 끝이 없는 권능으로, 끝이 없는 빈곤을 끝이 없는 자비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다음과 같은 비교로 이해해 보기로 하자. 인간으로서 우리가 힘이 없음을 알거나 느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도움이 필요함을 느낀다. 얼마나 무능력하고 빈곤한지 알면 알수록, 그만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원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하거나 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일억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으로 직접 확보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움이 필요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 더군다나 일억처럼 한정된 것이 아니라 끝이 정해지지 않은 요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한되고 끝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끝이 없는 도움이 필요할까?

인간은 육체적으로 제한되고 끝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들은 끝이 없는 상상과 끝이 없는 요구를 원한다. 예를 들면 전혀 죽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만 죽기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소유한 것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한다. 원하는 것들이 제한된 세상의 경계에서 다음 세상으로 연장된다. 제한된 이 세상에서 나아가 제한되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이 말은 즉 제한된 인간에 제한되지 않는 요구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이러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며 그분을 생각할수록 그 만큼 그분의 필요함을 느낀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빔 프로젝트의 빛을 낮에 비추어도 잘 안보이는 것과는 달리 어두운 밤에는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확실하게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에게 우리의 빈곤함과 무능력함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친근함, 주님과 관계가 더욱 향상된다. 즉 무능력함과 빈곤함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분의 권능의 풍요로움으로 바뀐다.

즉 이처럼 무능력과 빈곤은 숭배의 기본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경배행위가 무능력과 빈곤 위에서 행해질 때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자신의 빈곤함을 알고 끝이 없는 권능의 주인에게 절을 함을 의미한다. 그분에게 간절하게 원하며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청함을 의미한다. 예배에서 이렇듯 기도나 단식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무능력함과 빈곤함을 말할 때,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무능력함과 빈곤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능력함을 느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알함두릴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힘과 이성을 주셨다.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에 비해 우리가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한대에 비해 숫자 0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며 이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원할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설득할 수 없다!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나약한지 잘 알고 계셨다. 무능력함과 나약함이 그를 숭배하게끔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³⁰

30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편지들(Mektubat), p.449, Sözlür 출판사

“숭배할 때, 신 앞에 있을 때, 전능하신 창조주의 호의로 나에게 어떤 인격을 주셨으며 그 인격의 특별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 태도들은 숭배의 의미의 본질인 ‘결점을 아는 것, 빈곤함과 무능력함을 아는 것, 낮음으로 신의 앞에 대피하는 것’으로 이르는데, 그 인격이 있을 때 내 자신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행운이 없고, 빈곤하며, 무능력하며 결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세상 전체가 나를 칭송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며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쯤에서 짚고 넘어 가야할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가 바로 ‘관계를 맺음’이다. 숭배에 있어서 중요한 이것은 바로 관계를 맺음, 연결의 의미가 있다.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나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바로 이 연결은 ‘신앙’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맺어진다. 어느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화를 쓰는 것처럼, 주님과 연결은 신앙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화기의 질과 튼튼함에 따라 소리의 질도 좋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관계의 강도에 따라 강해진다.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이 비스밀라에 대해 언급한 리살레 이누르 모음집 중 첫 번째 말씀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편안하

고,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고생한다’ 라고 한다. ‘비스밀라’ 는 그 관계와 연결의 중요한 비밀번호인 것이다.

관계란 바로 연결을 의미한다. 강한 힘에 의지하는 사람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는가? 고통에 대해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다. 우리도 바로 관계로 주님에게 의지한다.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한 문제들, 사건들, 나쁜 것들로부터 바로 그분에게 의지한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관계를 맺음에는 숨겨져 있는 달콤함이 있다. 신앙으로 주님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그 달콤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음이란, 일시적인 ‘종’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 맺는 연결이기 때문이다. 즉 관계를 맺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과 연결한다.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면 영원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신앙자의 마음에서 느끼는 달콤함을 생각해보자. 이 비밀을 리살레이누르 모음집을 연구하고 여러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강의한 페리드(Ferid)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앙의 비밀로 주님과 관계를 맺은 종은 주님으로의 길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음으로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관찰을 겪게 된다. 관계가 주는 큰 기쁨으로 모든 감각들과 이성을 지속적으로 깨어있게 한다. 관계의 비밀로 인해 순수해지고 빛이 나는 마음의 거울에 수천가지의 의미들이 비춰지기 시작한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의미들이 이 기쁨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종은 자신이 느끼는 그 정신적인 기쁨들과 영원한 세상의

달콤함들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느끼기 시작한다.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보여주는 것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인간을 영원함과 연결하는 상태로 만든다. 이 하나님의 이름들 중 몇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Hayy³¹ , Kayyum³² , Baki³³ , Ahir³⁴ , Varis³⁵ ... ”³⁶

관계의 비밀로 주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끝이 없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고 수도 없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사람은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떠나 영원한 세상으로 갔을 때도 이곳에서 마음으로 느꼈던 감정과 달콤함들을 느끼게 된다.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의 영원함의 맛과 행복을 같거나 더 완벽한 방식으로, Baki-i Zülkema³⁷ l의 영원함, 나의 주님, 나의 신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확실한 증거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원함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죽지 않는 진리가 밝혀지기 때문이다. 즉,

“그 믿음으로 나의 본질은 영원하고 또한 지속된 하나의 이름의 그림자가 되며 더 이상 죽지 않는다” 라며 신앙의 지각으로 실현된다.”³⁸

31 알 하이(Hayy) :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32 알 카이움(Kayyum) :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피조물들의 존재를 관리하시는 분.

33 알 바키(Baki) : 시간과 공간 모두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34 알 아히르(Ahir) : 그분은 무한히 존재하시는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35 알 바리스(Varis) :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일시적이며 모든 것들은 그분께 돌아간다. 최후의 돌아갈 곳.

36 Ferid el Ensari, Risale-i Nur'un Anahtar Kavramları, p.241, Nesil 출판사, Ist. 2007.

37 Baki-i Zülkema : 완벽함을 가지신 영원하신 분

38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빛들(Şualar), P.95, Söz 출판사

신앙의 관계를 맺음의 비밀로 인해 일 분이라도 존재하는 것은, 신앙의 관계가 없이 수천 년 존재하는 것과 맞먹는다. 더군다나 그 일부는 존재의 단계들의 관점에서 다른 수천년보다 더 완벽하며 더 넓다.³⁹

이러한 깊은 진리를 알고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 우리의 경배 행위들로 바로 신앙을 보호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주님과 과의 관계도 새롭게 된다. 경배들을 지속해야 하는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핸드폰의 건전지가 거의 없을 때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조금 있다가 완전히 핸드폰이 꺼져 버리게 되며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처럼 지속적으로 행한 경배 행위들 또한 매일 매일 행함으로 인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며 바로 그것은 주님과 과의 관계를 강하게 만든다.

39 리살레이누르 모음집중 섬광들(Lem'alar), p.541, Sözler 출판사

4.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경배행위가 되는 비밀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분의 호의로 넘칠만큼 많은 보상을 주신다. 꾸란 안암장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한 가지의 선행을 하면 10개의 보상을 주시며, 한 가지의 죄를 지으면 오로지 그 한 가지 죄만 적으신다. 많은 하디스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다. 또한 의무 경배행위들을 행하면 작은 죄들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많은 하디스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언급한 하디스가 있다.

“큰 죄들을 피하는 경우, 하루 다섯 번의 예배와 금요일 예배 사이에 행한 작은 죄들을 용서하십니다.”⁴⁰

라마단과 축복받은 거룩한 밤과 같이 특별한 날들은 이 보상들을 더욱 많이 주신다. 예를 들면 축복받은 거룩한 밤에는 한 가지의 선행은 3만배가 된다. 이렇듯 단지 하룻밤 만에 80년치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진실로 우리는 거룩한 밤(권능의 밤)에 내려주었느니라.

거룩한 밤이 무엇인지 그대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이 밤은 천개월보다 더 나으니라.

천사들과 가브리엘(성령)이 그들 주님의 허가로

40 하디스 Muslim, Taharet 14, Buhar-i, Mevakit 4,6

모든 명령을 갖고 내려 오느니라.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그 밤 내내) 평화가 있으리라.⁴¹



즉 주님께서는 한 편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주시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 주기 위해 올바른 길로 이끄신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편한 종교인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보상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오로지 의무 경배 행위들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의무 경배를 행한 후 이 이외의 행위들을 할 때도 보상을 주시기 위해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 예를 들면 올바른 ‘의도’로 행한 매일 매일의 행위들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이어지듯이, 우리가 행한 행위들, 태도들 또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행한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바로 경배 행위가 되는 것이다.

편한 종교인 이슬람에서는 살아가는 매 순간, 각각의 일 분이 바로 경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다. 매일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조건에 들어 맞는다면 바로 이러한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한 매일매일의 행위들이 경배 행위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

41 꾸란 까드르장 97장 1~5절

A. 의도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습이나 재산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로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⁴² 라는 하디스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란 마음에 숨겨진 의도, 목적을 의미한다. 즉 마음의 의도이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 속에 담겨 있는 목적, 목표, 의도를 의미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는 오로지 그 일을 행한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의도’이다.

A-1 어떻게 의도로 죄가 보상이 되며, 보상이 죄로 바뀔까?

의도란 이처럼 무척 중요한 만병통치약이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 경배로 바뀌듯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경배는 죄로 바뀔 수 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 속에 있는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조금 지나 목마름을 느꼈고 길가에 있는 우물가로 갔다. 우물에서 물을 푸기 위해 갇은 애를 썼지만 자신의 말을 홀로 놔둘 수 없어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결국 우물 옆에 말뚝을 박아 말을 고정시키고 물을 푸는데 성공해 그 물로 목을 축일 수 있었다. 조금 휴식을 취한 후 길을 떠나려 했지만, 고정시켜놓은 말뚝을 뺄 수가 없었다.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 말뚝으로 가축들을 고정시킬 수 있을거야…’

42 하디스 무슬림이 전함, Birr 32

그렇다면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 말뚝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도로 그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된다. 얼마 후 그 우물에 다른 사람에 와서 그 말뚝을 보고는 ‘아니 누가 이곳에 이런 말뚝을 박아놨지? 만일 여기에 걸려 넘어져 우물 속에 빠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고는 그 말뚝을 빼 버렸다. 그 사람 또한 보상을 받는다.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완전히 상반된다. 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면 다른 한 사람은 죄를 받아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두 사람의 의도가 모두 선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보상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올바른 길에서 목숨을 던져 싸운 경우 지하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용감함을 나타내기 위해 올바르게 걷지 않는 길에서 목숨을 던진 경우는 남을 죽이는 게 된다. 이 두 가지 모두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결과는 같지만 그 속에 담긴 목적과 의도가 다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의도란, 아주 짧은 시간으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주술같은 경배이다. 짧고 일시적인 삶을 영원하고 강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영원한 세상의 매 분은 이 세상의 매 분과 비교할 수 없다. 그 곳의 일 분은 여기서의 한 달, 어쩌면 일 년과 같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알아주길 원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얻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분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물질적 이득을 위한 의도로 행하는 경배 행위들은 오히려 죄로 간주 된다. 그가 내세로 갔을 때 보상 대신 죄가 기다리게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내자 또는 경고자의 역할로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우리에게 보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심판의 날에 순교자 앞에 오셔서 질문하실 것이다.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물으실 것이며, 순교자가 “당신의 길에서 싸워 결국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당신이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에서 싸웠으면서” 라고 하시며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다.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나는 40년 동안 오로지 4가지 단어를 배웠다네” 라고 했다. 그리고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의도’ 라고 했다.

“의도는 한 가지의 영혼이며 그 영혼의 영혼도 바로 İhlas(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는 행위)이다”⁴³

의도는 마음과 관계가 있으며 마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말로 해야 한다. 마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은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B.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는 행위(İhlas)

B-1 경배에서 가장 순수한, 아무 것도 첨가되지 않은, 깨끗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 : İhlas

아주 작은 행위가 아주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비밀은 바로 두 가지이다. 오로지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창조주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 행위의 가치가 수천배로 늘어나는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B-2 가장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의지할 수 있는 곳 : İhlas

가장 위험한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의 구실을 한다. 그 방패를 깨부수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어떠한 것도 없다. 사탄조차도…

43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빛의 시(Mesnevi-i Nuriye), p.96, Sözlər 출판사

주님께서 사탄을 천국에서 내쫓으실 때 사탄은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맹세했다. 인간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모든 수단과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임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오로지 İhlas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도 절대로 그들을 흔들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또한 İhlas를 하는 자들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셨다.



이블리스가 말하더라.

주여 당신이 나를 방황토록 하였기에

지상에서 내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 모두를 방황케 하리요.

그러나 당신의 İhlas종복들은 제외됨이라 하메.⁴⁴



B-3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고 아름다운

특징들 중 하나 : İhlas

İhlas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위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장 높은 특징이며 인간의 다른 성품들도 좋게 만든다.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행위를 할 뿐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성품이 좋지 않을까? 오로지 그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일시적이며, 남에게 굽신거리는 행동이 자신에게 좋아 보일까?

44 꾸란 히즈라장 15장 38~40절

İhlas를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도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베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언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

B-4 인간을 가장 짧은 지름길로

창조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 İhlas

이 세상에 오로지 교역을 위해 온 인간에게 실행해야 하는 많은 의무들이 있다. 그 의무들을 성실하게 행할 때 바로 주님의 만족을 얻게 된다. 내세에서는 그 성실함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그 곳에서 바로 각자의 신앙과 İhlas가 중요해지게 된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행위들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분의 만족을 위해 한 행위들만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며 하디스에서 İhlas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왜냐하면 İhlas의 아주 작은 행위는 İhlas가 없는 수천배의 행위보다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다.

B-5 받아들여지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인 기도 : İhlas

İhlas를 위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몸짓으로 기도를 함을 의미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순수한, 깨끗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

주 순수한 기도이다. 기도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순수한 의도로 기도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처럼 İhlas에는 이러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예언자들과 위대한 성인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 İhlas에 있다.

B-6 현세에서 이로움을 주듯이 내세에서도 행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중개자 : İhlas

İhlas는 우리가 현세에 있을 때 조차 열매를 맺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 가치를 발휘한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의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로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그 자체만 있을 뿐, 안은 텅텅 비워질 것이다. İhlas로 인한 행위들은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과 정신을 의미하며 바로 그것이 그 행위를 생동감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내세에서 우리가 한 행위들을 측정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중개수단을 찾아야 한다. 우리를 구원해 줄 가장 중요한 중개자는 바로 우리의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중개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İhlas로 인한 행위들이다. 내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중요한 중개자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B-7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İhlas

İhlas는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했을 때 더 강력한 힘이 된다. 사탄의 속임수나 함정, 자신의 욕구가 바라는 나쁜 것들이나 원하는 것들, 외부의 끊임없는 비 윤리적인 상황들에 대해 맞설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게 된다. 우리를 에워싸는 이 위험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İhlas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셀 수 없는 적들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İhlas를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다.

B-8 İhlas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İhlas를 확보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기서 언급하겠다.

첫 번째, İhlas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가지는 바로 Rabita-i Mevt를 하는 것이다. 즉 죽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임을 계속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자아(욕구)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⁴⁵

어느 날 그대도 죽을 것이며 그들도 어느 날 죽을 것이라.⁴⁶



이 꾸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은 *ihlas*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ihlas*를 파괴하는 가장 큰 질병 중 한 가지가 바로 전혀 죽지 않을 것처럼, 마치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죽음을 상기시키며 생각하는 것이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즐거움을 없애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죽음을 더욱 더 많이 생각하세요”⁴⁷ 라고 하시며 이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와 같이 조언하셨다.

그렇다. 죽음은 당연히 올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언제 올지 그것을 알 수 없을 뿐이다. 바로 이 사실이 인간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나 죽음이란 바로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다. 이처럼 죽음이 당연히 오는 것이라면 매 순간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이 일시적인 목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45 꾸란 이브라함장 3장 185절

46 꾸란 주마르장 39장 30절

47 Tirmiz-i, Zuhd 4, Kiyame 26

과연 매 순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과연 매일 올려 퍼지는 살라(누군가 사망했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해 성원에서 하는 기도)가 누군가 내세로 갔음을 알리지 않는단 말인가? 과연 어느날 우리의 살라도 이처럼 올려 퍼지지 않겠는가? 이 세상의 배가 우리를 빠르게 죽음의 순간과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장소로 향해 가고 있음에도 전혀 죽지 않을 것처럼 웃으며 즐기고 있단 말인가? 금지된 것(하람)의 즐거움을 지속하고 있단 말인가?

오로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이라는 시각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İhlas를 확보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번째, İhlas를 확보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생각(tefekkür) 하는 것이다. 생각(tefekkür)은 모든 곳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은 오로지 한 분이심을 보여주며 그분 앞에 있음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왕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왕 앞으로 가서 왕과 이야기를 할 때 총리에게 몸을 돌려 그와 눈을 마주치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왕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지 않겠는가? 왕은 그런 예의 없고 존경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죄를 물어 그를 감옥에 가둔다면?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으므로 당연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는 왕의 힘과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진실된 생각(tefekkür)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계심을 지각할 수 있다. 우리도 또한 바로 그분의 앞에 있게 된다. 그분의 앞에 있으면서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바로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처럼 항상 그분의 앞에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은 바로 우선적인 행동들로부터 구하며 İhlas를 확보하는 길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고난들, 문제들을 올바르게 읽으면서 바로 İhlas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으로부터 온 주의나 경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면서도 간혹 올바르게 못하는 길로 빠지기도 한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표시들과 표지판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들과 상황들이다.

예를 들면 양을 치는 목동이 이웃의 눈에 들어간 양들에게 돌을 던지면 그 양들은 그 돌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 들어온 것을 인지하게 된다. 바로 그 돌은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경고임을 인지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바로 이 예처럼 고난들, 어려운 상황들은 ‘운명’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어진 경고나 주의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보고 이해한다면 모든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은 주님

으로부터 보내진 주의나 경고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İhlas에 해를 주는 문제들에 대해 더 주의 깊게 대할 수 있게 되며 주님을 숭배할 때 더욱 견고하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C. 보는 관점(Nazar)

Nazar :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주의, 주의 깊게 보는 것 등의 의미로 쓰인다.

보는 관점(Nazar)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이다. 매우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많은 섬세한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없는 ‘보는 관점(Nazar)’이라는 특징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큰 의무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상황들을 원인이 되는 행위(인과관계)의 관점으로 본다면 무지가 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으로 된다.

‘무지’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언가를 물어보면 아주 작은 것들까지

설명한다. 하지만 만일 그 지식이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무지한 것이다.

‘지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Marifetullah)’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있는 지식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Marifetullah)이다. 본질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Marifetullah)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특징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산, 구름, 바다 등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다들 각자가 다른 표현과 몸짓으로 그 놀라움을 표현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오!”, “와!”, “와우!” 등의 표현 등을 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깊어진 무슬림은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99가지 이름들’ 중에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때 이 놀라움이 단순히 건조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담긴 지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Hakim⁴⁸ 이름을 보며, Cemil⁴⁹ 이름으로 피조물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

48 알 하킴(Hakim) : 모든 일을 지혜로 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로 창조하신 완전무결한 지혜로움을 지니신 분.

49 알 제밀(Cemil) : 아름다운 분, 좋은 것과 호의를 베푸시는 분.

시는지 보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인 Rezzak⁵⁰ 이름을 본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99가지 이름을 점점 더 알게 된다.

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이름들까지 생각하지 못한다. “마살라!”, “수브하날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이 세상을 그냥 세상으로만 본다면 원인으로 인한 결과 즉 인과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신앙이 된다. 하지만 그 원인 뒤에 감춰진 주체, 장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계란은 닭으로부터, 우유는 암소로부터, 수박은 땅으로부터 얻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원인들일 뿐이다. 매우 똑똑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도 계란을 만들지 못하는데 아주 단순하고 비이성적인 닭이 어떻게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즉 그 말은 닭은 바로 원인이며 단순한 중계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보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하는...

50 알 레작(Rezzak) : 모든 피조물들의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겨주시며 부양하시는 분.

C-1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꾸란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각각의 편지라고 한다.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과 특징들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꾸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을 원인에 의한 결과들의 장막만을 보고 그러한 값어치 있는 은총들을 사물들에 돌려 버린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예를 들면 거울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 자체의 유리에 집중해서 본다면 그 속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나 자신에 집중해서 본다면 거울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이 된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면 그 유리의 외형, 질, 크고 작은 것 등의 세세한 것들을 중요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속에서 비추는 Latif⁵¹, Rahim⁵², Fettah⁵³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처럼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산을 하나의 거울로 생각해 보자. 단순히 산의 높이와 크기만을 본다면 바로 그 유리만 보는 것

51 알 라티프(Latif) : 호의를 베푸시는 분. 모든 섬세하고 세밀함을 아시는 분.

52 알 라힘(Rahim) : 내세에서 신앙자들에게 끝이 없는 보상과 호의를 주시는 자애로우신 분.

53 알 페타(Fettah) : 모든 종류의 닫혀있는 것들을 열고, 쉽게 하시며 힘든 곳에서 구하시는 분.

이다. 하지만 그 생명이 없는 산을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은총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많은 아름다운 이름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다를 볼 때 주님의 Celil⁵⁴ 이름을 읽게 될 것이다. 태양은 얼마큼 큰지, 지구로부터 거리가 얼마인지, 얼마큼 뜨거운지 등의 오로지 건조한 지식만을 읽는다면 인간에게 두려움이나 놀라움 이외의 다른 것은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꾸란에서 언급하듯이 그 태양을 운영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해한다면 그 순간 바로 정신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C-2 보는 관점에 따라 확신의 단계가 높아진다.

무술(이라크 북부의 도시)에 어떤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 한번은 친구들과 함께 그분을 방문하였다. 그 집의 정원에 있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에 관한 주제에 다다르게 되었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

“선생님!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렌지 나무라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잔디라네”

“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54 알 켈릴(Celil) :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 숭고한 주권자

“그렇다면 자네에겐 무엇으로 보이는가?”

“이 나무와 잔디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의 징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심을, Kerim⁵⁵ 하심을, Rahim과, Rezzak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이 나무와 잔디라는 장막 뒤에 감춰진 그 이름들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자 기뻐하시며 “이것이 바로 확신의 단계라네, 즉 바로 그것이 Tasavvuf⁵⁶의 가장 높은 단계 중 하나라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삼라만상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물어본다면 바로 이러한 대답을 쉽게 할 것이다. 보는 모든 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보며 느낄 것이다. 즉 이 삼라만상을 없애버리고 어둠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꾸란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즉 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주의 깊게 보는 것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다. 보는 목적이 바로 주의 깊게 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물질의 생김새, 외형만 보고 그것의 예술성에 대해 감탄하며 그것을 만드신 장인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지한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55 알 케림(Kerim) : 호의를 베푸시는, 너그러우심과 자애로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

56 Tasavvuf : 신비주의, 수피즘

C-3 확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쉬운가?

오로지 단순히 “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에 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과 함께 다른 양심의 감정들, 자신의 무능력, 빈곤, *ihlas* 그리고 *타끄와*⁵⁷ 등을 해야한다.

이 요소들은 양심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성에서 집어넣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양심이란 바로 올바름, 그릇됨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지각 도구이다. 마음과 정신에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이성은 그것에 도달하는 길 중에 하나이다.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단계와 길이 있는 것처럼 귀도 하나의 길이며 눈도 하나의 길이며 혀도 하나의 길이다. 이것들 모두가 각각 하나 하나의 길이다. 이성도 양심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

양심이란 바로 그렇다. 집에서, 학교에서, 텔레비전에서 항상 이성을 먼저 사용한다. 하지만 주의해야한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마음을, 양심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주 간혹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라고 한다. 이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57 *타끄와* :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타끄와*라고 한다.

그렇다면 양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나 어느 순간에나 이성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때때로 자아(욕구)로부터 힘들게 느낄 때 이성의 사용을 막는다. 하지만 만약 양심 또는 양심과 관련된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성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잘못된 상황인 경우 양심적인 사람은 편하게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며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 또는 본 것들, 배운 것들이 오로지 건조한 지식으로 남지 않으며 그 지식들을 삶에 적용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는 양심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지식을 배워 놓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된단 말인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준다.

꾸란과 꾸란의 진리를 설명한 책들은 이를 잘 하게 한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의 양심은 잘 작동하는데, 즉 ‘행동으로 실천’ 하며 삶에 완전히 스며들게 한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를 할 때 기능이 쇠퇴한 부분에 다양한 방법과 동작들로 치료를 하며 그 부분의 기능이 회복된다. 이처럼 우리의 양심 또한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꾸란을 읽고 이야기하기,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읽기, 신앙 모임 참여하기 등 이 세상을 꾸란의 망원경으로 보면서 말이다. 이렇게 할 때 양심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하며 그 순간 위에서 언급한 ‘무능력’, ‘빈곤함’, ‘İhlas’, ‘타끄와’와 같은 양심에 연관된 것들을 느끼게 되며 ‘확신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맘 부사이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때때로 인간은 눈이 아파서 태양을 부정한다. 입이 아파서 물 맛을 맘에 들어 하지 않는다.”

양심 또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게을러져 사용하지 않게 된다.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쪽 손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움직이는 데에도 상당히 힘들어진다. 바로 양심은 이와 같은 것이다.

바로 꾸란의 진리를 설명하는 리살레이누르 모음집을 읽을 때 이 부분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양심이 활동하게 되며 그 순간 바로 “무능력하구나”, “빈곤하구나”, “이성이 있구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의지해야 겠구나” 등을 깨닫게 된다. 양심이 활동하는 순간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지기 시작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된다.

D. 하나님을 숙고함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현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웅장한 궁전처럼 만드시고 하늘을 천장처럼 만드시고 별들로 장식하셨다. 태양을 거대한 전등처럼 그 천장에 달아 놓으

시고, 따뜻하게 하며 음식들을 데우기 위한 장작불처럼 만드셨다. 달을 야간등으로 켜시고, 산들을 많은 보물상자처럼 만드시고 또한 물을 보관하는 물탱크의 임무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다. 이 지상을 각양각색의 꽃들과 나무들로 장식하시고 카펫처럼 땅에 깔으셨다. 구름을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과실들에 물을 주는 스폰지처럼 만드셨다. 바람을 매 순간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하시고 동물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자로 임용하셨다. 이처럼 셀 수 없는 아름다움과 섬세함들로 장식하셨다. 이 세상의 궁전을...

궁전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인간으로 보내셨다. 모든 이 은총들을 오로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하는 피조물과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의 편지로 쓰시고 보내신다. 그렇다. 편지가 있다면 그 편지를 쓴 어떤 이가 존재해야 한다. 어떤 예술품이 있다면 그 예술품을 주의 깊게 보고 관찰하고 그 예술 작품에 대해 감탄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 예술 작품에 대해 이해하는 이가 없다면 전시회를 열 필요가 있을까? 읽을 이가 없다면 편지를 보낼 이유가 있을까?

한 마리의 모기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듯이, 질병도, 죽음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언어들로, 몸짓으로 그리고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생명이 없는 것들도 자신에게 보여지는 예술로...

수업 중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간혹 어떤 비둘기들은 공중제비를 넘으며 재주를 부립니다. 다른 새들도 날긴 하지만 비둘기들은 날기도 하고 공중에서 제비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면 어떤 길이 있다고 치세. 길가에 있는 상점들의 유리에 색색깔의 전등이 있네. 한편에서 불이 들어오면 다른 쪽의 불은 꺼진다네. 왜 이렇게 했을까? 단순히 밝게 비추기 위해서인가? 당연히 주의를 끌기 위해서라네”

어떤 광고를 생각해 봅시다. 광고를 왜 만들까? 우선은 그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의 주의와 환심을 끌어 그 제품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비둘기도 광고처럼 자신을 광고하고 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통상적으로 날기만 한다면 주의를 끌지 못하지만 공중제비를 넘으면 주의를 끌기 때문이다.

한 번은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이 제자들 중 무스타파와 순 그루형제와 함께 앉아 있었다. 갑자기 ‘탁’ 하는 소리가 들려 모두 그 순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때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이것이 ‘나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네” 라고 하셨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이 부는 것 등 모두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무의 나뭇잎들을 보아라! 환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댄스를 추고 있다.

그렇다면 왜 주의를 끌까? 왜냐하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만들고 보낸 장인을, 예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읽는 것, 이해하는 것, 그 위에 새겨져 있는 예술품의 값어치들을 보는 것은 이성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는가?

인간은 눈, 귀, 혀, 코, 감정처럼 아주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없단 말인가? 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렇다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때문에 자신이 본 것들을 이해하고, 느낀 것을 해석하고, 맛을 본 것을 이해한다.

만일 소에게 아주 아름다운 꽃을 갖다 대면 먼저 냄새를 맡고 그 다음은 바로 입으로 가져가 먹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꽃을 인간에게 준다면 먼저 냄새를 맡고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여기기 때문에 주는 선물로 생각해 그 꽃을 계속 볼 수 있는 곳에 꽂아 둘 것이다.

D-1 아주 중요한 경배행위 : 하나님을 숭고함

꾸란에서 특히 마지막 절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숙고함이다.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여전히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아주 조금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인가?”, “이성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 바로 권능의 상징들이 있다” 처럼 꾸란에서 어떤 구절들은 인간들이 모든 상황에서 숙고할 수 있도록 이끈다.



천지 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보라.

**이성을 쓰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존재하심, 유일성, 권능,
자비를 나타내는 수많은 상징들이 있다.⁵⁸**



이 꾸란 구절이 계시되던 날 아이샤⁵⁹ 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사도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어느 밤에 일어나셔서 우두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다. 예배를 드리는 중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길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수염에, 절하는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새벽 아잔을 울리기 위해 빌랄이 왔을 때 여전히 그 상태로 계셨다.

“사도님! 그분께서는 당신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이토록 울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오늘 밤 하나님께서 꾸란 구절을 계시하셨다네. 이 구절이 나를 울게 한다네.” 라고 하시며 꾸란 이므란장 190절을 낭송하셨다.

58 꾸란 이므란장 3장 190절

59 아이샤 :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인들 중에서 예언자의 전승과 관련된 지식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천지 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보라.

이성을 쓰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존재하심, 유일성, 권능, 자비를 나타내는 수많은 상징
들이 있다.”



“이 꾸란구절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숙고하지 않는자들,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단 말인가?”⁶⁰

‘하나님을 숙고함’이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이끄는 높
고 체계적인 생각들이다. 또한 아주 숭고한 경배행위이다. 하나님
을 숙고함의 가치를 아는 높은 사람들(학자들, 선지자들 등)은 대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숙고하며 보냈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때때로 아부 바
크르⁶¹ 와 함께 메디나의 옆에 있는 셀레산에 가셔서 일몰을 보신
후 밤새 경배를 하며 예배를 하신 후 앉으셔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숙고 하셨음을 하디스에서 전하고 있다.

또한 꾸란의 장 이름 중 하나로 제시된 루끄만장⁶²이 있다.

60 Ibni Kesir, Tefsiru'l - Kur'an'l- Azim II, 164

61 아부 바크르 : 무함마드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그림자처럼 함께해 온 친구이자 장인.
1대 칼리프.

62 꾸란 루끄만장 : 메카에서 제시된 34절로 이슬람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제 31장.
현자 루끄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루끄만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루끄만이라는 의사는 오랜 기간 동안 군중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의 지혜롭고 현명한 말씀들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를 방문해 오랫동안 들곤 했다. 한번은 사람들 사이에 있길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숙고하기 위해 혼자서 지내는 게 더 나은 것 같네. 하나님을 숙고함은 사람을 천국의 길에 이르게 한다네.” 라고 하셨다.

D-2 하나님을 숙고함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우리들

이 세상에 창조주를 찾고 알기 위해 보내진 인간은 아주 작은 실한 가닥조차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베디웃자만(Bediüzzaman) 처럼 하나님을 매 순간 숙고하는 위대한 학자나 성인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들보다 그 속의 감춰진 의미들을 보았다. 즉 현상과 의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을 보았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눈에 십어진 벼를 보면서 하나님을 숙고하는 것이 그것을 먹는 것보다 더욱 더 맛있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요즈음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숙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할 일이 남아있지 않는 여유로운 시간 또는 한가할 때만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숙고함은 바로 높은 경배행위이다. 경배란 오로지 시간이

있을 때만 하는 행위가 아니다.

때로는 자아(욕구)가 말하길 “너무 바빠서 전혀 시간이 없어!” 또는 “너무 피곤해!” 라고 한다.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기 위해 몇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전혀 피곤하지 않다.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즐거움들은 우리의 자아(욕구)에게 전혀 힘들지 않다. 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삶을 위해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인 하나님을 숙고함을 위해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이처럼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며 죽이는 이 시간들은 다른 어떤 자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D-3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증거들

어느 날 터키 보스포루스 대교에서 아시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앞에 아주 커다란 터키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바로 그 때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국기를 사용할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다시 대답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국기는 바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표시이기 때문이지. ‘그 국기를 세운 땅은 바로 그 나라의 땅임을 의미하지. 이 국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지. 국기가 세워진 바로 그 곳은 바로 그 나라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지’ 라고 그 국기는 말하고 있다네. 이 빨간색의 바탕에 별과 달무늬의 국기가 말하고 있다네. 이곳은 바로 터키!” 라고 말이다.

눈을 돌려 보니 길가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이것들 또한 국기처럼 땅에 심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 나무들도 국기처럼 하나의 심볼인가? 라며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며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이 나무들은 모두들 각각 하나 하나의 심볼이다. 또한 땅에 세워진 국기들 또한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말하며 그 각각이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네!’ 라고 소리친다. 따라서 똑같은 종의 나무를 다른 장소에서 본다면 “이 곳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기가 세워진 땅이 나라의 소유임을 나타내듯이 이 나무들 또한 세워진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나무와 같은 종들이 있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한다. 다른 식물들 또한 같은 의미를 공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땅들, 흙들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하나 하나, 각각을 따져 본다면 끝이 없으며 바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그들과 연관되는 모든 것(태양, 물, 공기 등)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숙고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셀 수 없는 증거들이기 때문이다. 자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숙고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D-4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숙고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숙고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바로 경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어떤 장소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을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단조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어느 곳을 갈 때 매번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숙고하는 것이 점차 고정된 사고로 정립되기 시작하며 결국은 그 맛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숙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얼마 후 이성은 피곤해지기 시작하며 다른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연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숙고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숙고할 때 인간은 창조주에 대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수브하날라, 마살라, 바레칼라, 알함두릴라,

알라후아크바르 같은 표현들과 함께 그 가치를 알기 시작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숙고하는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광대한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며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거대하고 웅장한 움직임들을 보며 놀라움에 “수브하날라” 라고 한다.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며 “알함두릴라” 라고 하며 감사한다. 가장 거대하고 크고 웅장한 것들부터 가장 작은 미세한 것들까지 모든 것을 보며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셀 수 없는 수많은 지혜들을 볼 때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공표한다.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면 그땐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분산되더라도 이 때는 다른 감정들과 다른 도구들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한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감정들과 도구들을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숙고함과 기억함으로 그 도구들이 비로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는 대부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지 않는다. 기도집을 읽을 때 하나님을 숙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숙고 할 때 기도집을 읽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숙고함과 찬미함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서로를 강하게 한다. 하나님을 숙고함은 기억하게 하며, 기억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숙고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주님께서 꾸란을 통해 말씀하시길,



서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하나님을 염원하고,
 천지창조를 숙고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말하길
 주여 당신은 아무 의도없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나니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를 유황불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⁶³



63 꾸란 이므란장 3장 191절

이 꾸란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숙고한 후 찬미한다. 즉 하나님을 숙고한 후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나이다” 라고 하며 기억하는 것을 찬미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숙고함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D-5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읽을 수 있을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곳에 그분의 모든 이름들을 심어 놓으셨다. 오로지 한 가지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이름들을 모두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꽃을 보면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무엇인가?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Cemil 이름이 보인다. 그러다가 점점 볼수록 다른 이름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꿀벌들이 꽃에서 달콤한 꿀을 만들며 다른 벌레들도 그 꽃으로부터 양식을 얻기도 하고 또한 어떤 꽃에서는 약을 얻기도 한다. 바로 여기서 주님의 Hakim, Rezzak 그리고 Safi⁶⁴ 와같은 이름들이 보인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들이 장막처럼 서서히 하나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처럼 처음엔 오로지 Cemil이름만 보이다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이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64 알 사피(Safi) :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를 주시는 분,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달걀을 창조하셨다. 처음에 달걀을 볼 때 맨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무엇인가? Halik⁶⁵ 이름이다. 여전히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다. 보이더라도 아주 조금 보인다. 하지만 그 달걀로부터 양식을 주시는 것이 보인다. 즉 Rezzak이름이 바로 그곳에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걀이 양식이 된단 말인가? 그분의 의지가 없다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즉 주님의 Murid⁶⁶ 이름 또한 보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

바로 이처럼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들을 비춰주고 있다. 오로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거나 곰곰히 더 깊게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보인다. 인간에게조차 이 이름들이 보인다. 각각의 사람에게서 비춰지는 많은 이름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주의를 끄는 이름이 맨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베디웃자만(Bediüzzaman)에게는 Hakim과 Rahim 이름이 보인다. 성품이 매우 온화한 사람에게서 Halim⁶⁷ 이름이 보일 때, 강한 모습의 사람에게서는 Celil⁶⁸ 이름이 먼저 보인다.

65 알 할리끄(Halik) :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

66 알 무리드(Murid) : 모든 것을 그분의 의지로 하시는 분.

67 알 할림(Halim) : 부드럽게 대하는 분.

68 알 젤릴(Celil) :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 숭고한 주권자.

D-6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이가 또는 어떤 자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할까? “아이고 어떡해!” 라며 바로 마음이 아픔을 느낀다. 그렇다면 자기 자식이 아프거나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아프다면? 그 때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플 것이다. 첫 번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것과 두 번째 소식의 아픔은 같을 수가 없다. 첫 번째 소식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 라고 느끼는 반면 두 번째 소식은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 잠이 확 달아나며 편안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편안함을 포기하게 된다. 더군다나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회복되기 위한 것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것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할 것이라는 것엔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야외에서 피크닉을 하기 위해 몇몇의 가족이 같이 숲에 갔다고 상상해보자. 그 곳에서 몇명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고 한 명이 술래가 되어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고 있었다. 모든 곳을 살펴보고 나무 뒤까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엄마가 자신의 자식이 그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찾을 수 없게 되자 그 엄마가 자신의 자식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나무 뒤까지 살펴본다. 우리가 보는 이 두 명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목적이 같을까? 첫

번째 사람은 웃으며 즐기면서 찾고 있으며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단순히 놀이 이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만약 찾지 못한다면?..”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애가 끓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아는 것, 찾는 것을 자신의 자식을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모든 나무들, 나뭇잎들, 빗방울 하나하나, 바다의 파도, 바람이 부는 것으로부터 찾을 것이다. 아이를 잃은 엄마 처럼 다른 어떤 것도 그 순간 생각할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식만 생각하며,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5. 시험의 비밀

주님께서는 셀 수 없는 지혜들과 목적들로 이 현세라고 불리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한 끝이 없는 지혜들로 무척이나 다른 변화들과 전환들에 알맞은 상태로 만드셨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등을 서로 서로 섞으며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여 시험의 장을 열어 놓으셨다.

시험이 끝난 후 주님은 시험에 떨어진 자들에겐.

“

죄인들이여!

오늘은 너희를 의로운 자들로부터 분리시키리라.⁶⁹

”

라고 꾸중하시며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다. 또한 시험에 통과한 자들에게는.

“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들어와 거주하소서.⁷⁰

”

라고 하시며 천국으로 보내실 것이다.

69 꾸란 야싯장 36장 59절

70 꾸란 주마르장 39장 73절

오로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분리될 것이다. 좋은 것과 아름다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천국으로 보내질 것이며 천국의 아름다움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또한 나쁜 것과 추한 것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옥으로 보내져 모두 형벌을 받으며 또한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다. 과거와 미래는 그의 지식 안에 있다.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그분의 끝이 없는 지식으로 아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또한 우리가 천국 또는 지옥에 갈지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왜 시험하실까?

그렇다. 그분의 지식은 끝이 없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기 위해 시험을 하실 필요가 당연히 없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결과를 모른다. 우리에게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이 세상에 보내신 후 전혀 시험하지 않고, 어느 누구는 천국에, 어느 누구는 지옥에 보낸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이 결과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천국에 보내지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옥에 보내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두가 “우리를 왜 지옥에 보내셨나요?” 라며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그 끝없는 공평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천국에 보내어진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시험을 치른 그리고 다양한 시험의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은 천국에 간 순간, 그곳에서 느낄 맛은 당연히 전혀 다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 다 시험문제이다. 길에서 맞닥뜨린 돌맹이 하나를 발로 차는 것부터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사람들과 하는 모든 대화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한 반응들, 행동들은 우리의 노트에 적혀 점수를 받는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시험 장소이며 다양한 시험들에 대해 아주 많은 꾸란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예시들로 우리가 시험에 있음을 설명하는 꾸란 구절들은 모두 우리를 각성시키며 시험에 통과한 자들에게는 아주 많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기아로써 재산과 가족과 곡식들을
손실케 하여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으니라.⁷¹**

너희가 가진 것과 그리고 너희안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며⁷²

실로 하나님은 대지 위의 모든 것을 장식으로 두었을 뿐
이는 그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지를
시험코자 함이라.⁷³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재물과 너희 자손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염원함에 벗어나서는 아니되나니
그렇게 하는 자 누구든 손실자들이니라.⁷⁴

너희 재산과 너희 자손은 하나의 시험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보상이라.⁷⁵

죽음과 생명을 재정하시어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⁷⁶



일상생활 중 자주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시험이라는 제도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열심히
하는지 게으른지, 질이 좋은 것과 질이 나쁜 것을 구별하기 위
해 자주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72 꾸란 이므란장 3장 186절

73 꾸란 카흐프장 18장 7절

74 꾸란 무나피쿰장 63장 9절

75 꾸란 타가분장 64장 15절

76 꾸란 몰크장 67장 2절

그렇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신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이 세상이라는 곳에 보내셨다. 또한 예언자를 보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시험의 정답을 제시하셨다.

사탄을 창조하심과 시험의 비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사탄을 창조하셨다. 사탄은 예언자께서 설명하신 것들과 반대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이렇게 하여 꾸란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께서서는 악과 선함을, 위선자와 신앙자를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악함과 선함을 구별하신다.⁷⁷**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악한 그룹과 예언자께서 설명하신 것을 따르는 선한 그룹을 나누신다.

⁷⁷ 꾸란 이므란장 3장 179절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시험을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가장 취약한 곳은 바로 여자, 육체적 관계, 재산, 위선, 명성과 명예, 칭찬, 유명해지는 것, 은총을 망각하는 것, 내가 했다고 믿는 것,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무관심하는 것 등이며,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느 누구에게 써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사탄을 무시하면 절대 안된다. 주님께서는 꾸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특히 꾸란 아이라프장에서는 이블리스(사탄)가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신다.



그가 말하길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리라.

그런 다음 내가 그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또한 그들 오른편과 왼편에서 그들을 방해하리니

당신께서는 감사하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리오.⁷⁸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왜 같이 있는가?

시험의 비밀의 또 다른 관점은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끌어내는 데에 있다.

⁷⁸ 꾸란 아이라프장 7장 16~17절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뿌리채 뽑아져 없어지길 바란다. 또는 이슬람이 강해지길 바라며 이슬람의 적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전혀 지혜와 정반대되며 그렇게 되면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들 또한 존재해야지만 시험이라는 의미가 바로 의미 있게 된다. 또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전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의 교우들은 우리들이 아주 본받을 만한 좋은 예이다. 그들은 무척 힘든 고난과 역경들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러한 모든 고난들과 역경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며 이슬람을 태양처럼 주변에 전파시키면서 이 빛으로 주변을 밝혔다. 그분들은 각각 하나 하나의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났다.

어떤 시대에는 이슬람을 위해 노력하는 형제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요?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소!” 라고 한다. 하지만 예언자 요셉께서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가 우물 속에 던져졌단 말인가? 즉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며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잠재된 능력을 피어나게 하신다.

빌랄⁷⁹은 완전히 뜨겁게 달궈진 모래 위에 눕혀졌다. 그리고 그 위에 돌들을 쌓았다. 그 뜨거운 모래로 인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지만, 메카와 메디나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서는 한 분이시다!”라며 전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그냥 아주 천한 노예였지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재능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 잘 알았기에 인내하였다. 그분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오늘날 모두들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 바로 승배로 연결되게 된다. 승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러한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시험은 왜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가?

전혀 의심할 여지없이, 이 세상이 시험인 이유가 꾸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블리스(사탄)가 고개를 들어서인 오로지 딱 그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 모두는 인사하였으나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인사하는 자 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⁸⁰**



79 빌랄 : 메카 부호의 흑인 노예. 무함마드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바로 이슬람으로 귀의함.
80 꾸란 아이라프장 7장 11절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지혜로써 시험의 마당을 창조하셨다. 이블리스의 불복종과 아담을 천국에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신의 법령의 일부분이다.

주님께서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들을 부여하셨다. 이 시험의 마당에서 높은 영혼을 가진 자와 낮은 영혼을 갖은 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다양한 경쟁의 상황들을 마련하셨다.

예를 들어 강한 불 속에 던져 석탄으로부터 금을 추출하고 금을 흙 속에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인간들 또한 시험이라는 다양한 불인 고난과 문제들로부터 쉽게 그들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을 치를 때 이성에게 문(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을 열어주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은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시험이라 부를 수 없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진리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많은 비밀을 풀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막으로 가리워진 사건들과 숨겨진 의미들 속의 예증들이 아주 작더라도 마음이 밝아진다.

사도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하디스에서 왜 쉽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장막으로 가리워진 표현을 하셨을까? 왜 비밀로 이야기하셨을까? 또한 몇몇 구절들 또한 이것과 비슷하게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종말에 대해 설명하실 때 “아주 가까이 있다” 라고 말하신다.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말하지 않으신다. 왜 이처럼 확실하게 종말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또한 몇몇 상황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다.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아주 넓고 깊은 자비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며 투덜거린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늘에 ‘라 일라하 일랄라 (하나님께서서는 한분이시다)’ 라고 쓰거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또는 ‘라 일라하 일랄라’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권능에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가? 전혀 아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모두들 이해하고 볼 수 있게 하셨다면, 모두들 그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순간 시험이라는 비밀은 사라지고 만다. 이 때는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셀 수 없는 지혜들로 주님께서는 몇몇 상황들에 대해서는 장막으로 감춰서 보내신다.

시험의 인식을 습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 의식을 우리 자신에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 또는 스스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컴퓨터에 항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다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바이러스가 없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다. 바로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일들에 대해서 여과기에 걸러서 반응해야 한다.

하디스에서 이야기하듯이 죽음을 항상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맛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시험을 떠올리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준비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가게 될 종착지인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매 순간 우리를 누가 보고 계신가?

우리가 시험에 있음을 의식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은 매 순간 숭배의 상태가 된다. 매 순간이 기록되며 그리고 결국은 내세에 가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반대로 시험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이 일시적이고 짧은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는가?

어느 누군가와 어느 곳에 가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를 '대기실'로 안내하였다. 그곳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CCTV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행동을 좀 더 신중하

고 주의 깊게 하지 않겠는가?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⁸¹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며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⁸²**



즉 깨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만족을 위한 알맞은 삶을 위해 좀 더 주의 깊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

더불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고 모든 우리의 행동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Kīramen Katibin 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있다.



**인간이 말 할 때마다
함께 있던 천사에 의하여 감시되고 기록되며.⁸³**



그들 또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81 부카리가 전함, 신양37

82 꾸란 하디드장 57장 4절

83 꾸란 까프장 50장 18절

기록하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의 행동 궤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숨겨진 의도들 또한 포함한다. 또 다른 하디스에서 언급하듯이 인간을 보호하는, 양식을 주는, 많은 고난이나 문제들과 위험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들 또한 우리를 살펴보고 있음을 잊지 말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정신적인(영혼같은)존재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 그들 또한 우리를 보고 있다.

사탄과 그에 속한 것들 또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약점, 잘못된 행동, 생각들에 따라 새로운 함정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함정에 맞서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그들의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래야 한다. 더군다나 매 순간...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 또한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가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있으며 모두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자. 이러한 생각이 조금 과장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르지 않다.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혼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창피해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 어느 누군가 봤다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살피는 존재들이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들 외의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더러운 죄들로 더럽힐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이와 같은 생각만으로 우리 자신이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매 순간 숭배가 되는 것이다.

6. 승배와 은둔하는 삶

승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 속에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삶을 지내는 것’이 떠오른다. 하나님과 가까운 많은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내셨다. 계다가 하디스에서는 “현세에 대한 사랑은 모든 실수의 시작이다”⁸⁴ 라며 이 세상과 멀어지는 것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은둔하는 삶에서 어떤 것들을 얻는가?

지금 어떤 자그마한 방이 있는 감옥에 가둬져 있고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축구팀이 이겼지?” 라는 호기심이 생길까? 당연히 생길 리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는 “영국이나 미국이 무엇을 하지?” 라고 어느 누군가 우리에게 설명 하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걸 궁금하게 생겼어?” 라고 할 것이다.

세이드 쿠틉⁸⁵은

“

내 종 가운데는 감사하는 자가 적더라.⁸⁶

”

84 El - Münavî, Feyzül - Kadir III, Hadis No : 3662

85 세이드 쿠틉: 이집트 출생의 작가이며 꾸란을 해석

86 꾸란 싸바아장 34장 13절

라는 꾸란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며 지냈다네. 때때로 아주 조그만 동전 만한 구멍으로 겨우 햇빛을 쬔 수 있었다네. 햇빛을 쬐고 싶어 그 방에 같이 지내는 죄수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 자신의 차례가 오면 햇빛이 비추는 곳에 멈춰 서서 얼굴, 손, 가슴, 등, 배 등 모든 부분에 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많이 움직였다네. 그런 후 자신이 느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햇빛을 쬔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 주었다네. 그 힘든 시절에 처음으로 햇빛을 쬔 그 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다네. 죄수들 중 한 명이 햇빛을 얼굴에 쬐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며 웃던지 그 날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다네. 그 때 누군가 깊게 숨을 내쉬 후 이렇게 말했다네. “하나님! 아! 바로 이 햇빛! 이 태양! 주님께서 바로 이 태양을 뜨게 하시는군요. 알함두릴라!”

햇빛을 쬔 때, 태양열로 인해 따뜻하게 데워진 물로 샤워를 할 때, 이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 높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가? 이처럼 어느 곳에서나 있고 모든 곳을 따뜻하게 감싸며 더군다나 무료이며 노력해서 얻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은총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사람은 은총들에 대해 느끼는 순간 다른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의미없는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지워진다.

이처럼 은둔한 삶에서 더욱 더 자신의 무능력함과 빈곤함 그리고 더 많은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하며 우리가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것들 또한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은둔생활로 보낸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2차 세계대전(본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으셨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지 물어보았다. 2차 세계대전처럼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궁금해하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째서 전혀 궁금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아주 큰 소송이 있다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대전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네. 그 소송은 바로 ‘신앙을 얻는 것 그리고 잃지 않는 것’이라네” 라고 말하셨다.

그는 이 세상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끼치지 않는 정보나 이슈들에 대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연예인이 OO메이커 신발을 신었습니다” 등의 광고를 내보내고, 우리는 그 즉시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시간을 보낸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서 몇 시간이고 이러한 하나도 값어치 없는 정보들로 머리속을 짹짹 채우며 지낸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이러한 궁금증을 느끼게 하는 감정처럼 아주 많은 감정들이 있다. 은둔하는 삶을 지내면 이 감정들을 순서대로 느끼기 시작하며 내세에 대해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잊지 말자. 은둔하는 삶이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에 대해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는 것이다. 만약 은둔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라면 바

로 이 때는 은둔하는 삶이 아님을 의미한다.

은둔하는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은둔하는 삶이란 바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정신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요즘같은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포기한단 말인가?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을 위해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이 삶을 아주 쉽게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오로지 그 맛만 생각하며 먹는다면 단순히 ‘일시적인 맛’과 함께 배를 부르게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만약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며 먹는다면 그 때 바로 그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와 함께 그 맛 또한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의 맛을 더 느끼게 된다. 첫 번째 맛이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된다면 두 번째 맛은 바로 승배가 된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한

다면 그 모든 맛은 수십배로 증가된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보고 그분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것이 비밀의 열쇠인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있다. 만일 우리의 목적이 오로지 물질적인 이득이라면 이는 이 세상을 위한 일시적인 이득을 가진 친구관계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을 포기하고 그 친구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그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또는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그 관계를 형성한다면, 물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맛은 수십배로 치솟게 된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그분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은둔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 비로소 일시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숭배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은둔하는 삶과 충격의 효과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측면과 사람들의 추악한 측면을 볼 때 이러한 점을 싫어하셨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길 원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여기서 내가 뭘 하는 거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후 얼마간 혼자서 지내며 하나

님에 대한 숙고와 숭배를 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다. 그 기간은 바로 충전의 시간이 된 것이다. 그 후 다시 돌아와 사람들 사이에 지내면서도 그 전보다 세상에 덜 집착하셨다. 이슬람 교육장소를 세워 제자 양성에 힘쓰기도 하셨다.

우리에게 이 ‘충격’기간을 신앙과 꾸란으로 먼저 채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심는 시작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추악한 측면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세를 생각하고 숭배를 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리살레이누르 모음집을 읽으며 이 부분을 잘 시행하게 된다. 맨 처음 읽는 독자들은 ‘충격’효과를 느낀다. 그리고는 이 세상이 아주 다른 세상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리살레이누르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며 이런 기간을 겪는다. 리살레이누르는 바로 숭배로 이끈다. 당연히 오로지 리살레이누르를 읽는 사람만이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다른 모임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감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처럼 ‘충격’기간은 우리에게 충전의 시간이 된다. 이 시간 덕분에 단조로움,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우리의 감정들은 바로 이렇게 동요되기 시작되며 바로 이러한 감정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동하는 삶’인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수많은 감정들은 묵혀지며 때로는 그

감정들의 일부분은 의미 없는 일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궁금함’이라는 감정은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라는 곳에 쓰인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이러한 궁금함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오히려 해가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은둔하는 삶’은 그 궁금함이라는 감정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끈다.

사도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슬람의 아름다움은 필요 없는 곳에, 의미 없는 곳에 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⁸⁷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리는 바로 ‘은둔하는 삶’이 되는 것이며 바로 그 때 진실한 숭배행위가 되는 것이다.

사도님의 교우들은 은둔하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사셨나?

사도님의 교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삶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스며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교우들은 이 세상이라는 문명속에 더 나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별처럼 빛나는’ 이라고 표현한 교우들은 오히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⁸⁷ Imam-ı Rabbani, Mektubat I, p.157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는 반대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말씀들’이라는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세상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보는 것이며 그것을 비추는 것이다. 이 측면은 가장 아름다운 측면이다.

두 번째 측면은 내세를 위한 하나의 경작지로 보는 것이다. 이 측면 또한 아름답다.

세 번째 측면은 오로지 이 세상을 위한 곳으로 보는 것이다. 이 측면은 일시적이며 추하며 고통이다.”⁸⁸

이처럼 사도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교우들과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바라본 측면은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측면이다. 이 측면들을 사랑한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아름다움이 있다. 이 측면을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바로 그것이 경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바로 이 세상을 내세를 위한 경작지로 알고 심고 키웠던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비추는 거울임을 알고 세세하게 본 것이다. 이 세상은 오로지 소개하는 장소일 뿐이다.

⁸⁸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말씀들(Sözler), p.851, Sözler 출판사

자아(욕구)는 끊임없는 달콤함을 찾아 다니며 지금 이 순간의 달콤함을 얻기 위해 애쓴다. 사실 현세의 즐거움의 밑바탕에는 현세에서의 달콤함들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시적인 달콤함은 언젠간 끝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박람회라고 치자. 그곳에서 여러가지 전시품들을 전시하고 새로 출시된 제품들을 소개한다.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제품이 있다면 그것을 오로지 시연의 목적으로 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제품이 맘에 들어 갖고 싶다면 그때 그 회사의 상점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처럼 이 세상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하나의 박람회 장소같은 곳이어서 이곳에서 본 것은 전시제품같은 것이다. 이곳에서는 오로지 소개하고 모든 원하는 것들을 조금 맛을 보게 한다. 만약 그 전시품이 맘에 들어 사기 원한다면 상점에 가서 원제품을 사야 한다. 왜냐하면 원래 목적은 바로 그 원제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달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오로지 하나의 박람회 장소처럼 보고 그렇게 산다.

즉 이는 이 세상의 달콤함들을 포기해야 하며 그래야 본질적인 맛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단순히 아예 손대지 않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전혀 맛보거나 음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포기한다는 의미는 욕망에 따라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

게 함으로써 모든 행위들은 바로 숭배로 바뀌며 교역이 된다. 이 일시적이며 명확하지 않는 인생이 영원하며 명확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7. 승배와 기도

수년 전 큰아들이 이라크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다. 시험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파트는 조금 어려웠지만 두 번째 파트는 쉬웠다. 통과하기 어려운 첫 번째 파트를 시험보는 첫째 날은 무척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결과는 시험에 통과했다. 쉬운 두 번째 파트를 시험보는 둘째 날은 시험이 쉽기 때문에 전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저녁에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험에 통과했냐고 물어봤고 가족들 모두가 너무나 놀랐다. 어떻게 이 간단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이해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인과관계)로 그 일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쉬운 시험에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 시험에 통과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어려운 시험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쉬운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한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어려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하나님께 쉬운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작든 크든 전혀 상관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분에게 바라야 한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신발끈을 묶을 때조차 하나님께 구하세요” 라고 하신 하디스가 떠올랐다. 즉 아주 사소한 작은 것조차 기도를 해야한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조차 자신의 무능력함과 빈곤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야 한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인과관계)에 기대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함을 느끼지 못한다. 지갑에 있는 돈을 믿으며 의지하고, 타고 있는 자동차에 의지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원인들은 그저 장막일 뿐이다.

기도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아주 높은 숭배이며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로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원할 때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떠올리며 해야 하는 아주 높은 관계이다.

본인은 처음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선생님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그 주변의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 시골에서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냇가가 있었다. 냇가에 물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호텔에서 나오자 호텔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옷을, 남자들은 험령험령한 옷을 입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버스로 그 냇가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홍수가 내려 그들을 덮쳤고

목숨은 간신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모든 짐은 그 홍수와 섞여 휩쓸려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들에게 옷을 주었고 그러한 이유로 각양 각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때 알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아주 작은 그 냇가조차 아무 것도 남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과 오로지 그로부터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수, 지진, 종말에 대해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연결되는 기도같은 수단을 꼭 붙들어야 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 응답하지 않으신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꾸란에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다르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주시고 그렇지 않다

면 주지 않으신다. 개미같은 아주 작은 존재들의 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양식을 보내시며 응답을 하시는 분이 과연 인간과 같은 가장 높은 피조물의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연히 응답하신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이라면 바로 그것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끝이 없는 지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 아니면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전혀 주지 않으신다.

마리아의 어머니께서는 남자 아이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



**주여! 태내에 있는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나니
이를 받아 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알고 계시나이다.⁸⁹**



라고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아이인 마리아를 주셨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남자 아이를 주시지 않았지만 예언자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여자들 중 한 분으로 자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89 쿠란 이므란장 3장 35절

사람은 성급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기도에 바로 즉시 응답받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시험에 잘 통과하게 해주시길, 내 집, 내 차 등...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들은 순수해야 하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즉 “주님! 저는 오로지 당신으로 부터 차를 원합니다. 차가 있다면 제 일을 하는데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에서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세요. 당신의 길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종교를 위해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처럼 순수한 의도로 원한다면 그 기도는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도 내세를 위해서도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한 그 기도는 숭배가 된다.

그렇다. 기도란 아주 높은 숭배행위이다. 숭배란 내세에 이롭다. 당연히 현세를 위해서 이로운 면도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내세이다. 순수함 즉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그 기도가 내세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더 아름답고 값어치있게 될 것이다.

기도를 해야 할 시간이 있는가?

재난, 고난, 문제, 가뭄 등은 필요한 것이 명확한 기도의 시간이다.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인간들은 이 시간에 자신의 무능력과 빈곤을 더 잘 알게 되며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에 의지하게 된다. 아주 간절하게 자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들이나 재난

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어릴 때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비가 오길 바라는 기도’를 하러 갔다. 마을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들은 오래되며 낡고 찢긴 옷들이었으므로 나에게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대기를 둘러쓴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는걸까? 주님께 자신들이 무척이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분의 자비로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즉 “주님! 우리는 무척이나 무능력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를 의미한다.

오마르⁹⁰ 께서는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오길 바라는 기도를 하러 가셨다. 오마르께서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삼촌인 압바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며 말씀하셨다. “주님! 이 사람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분의 삼촌입니다. 그분의 명예로 이 기도를 받아 주세요”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보여주며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비가 오던지 오지 않던지 그분은 지혜로 아신다. 왜냐하면 가뭄은 비가 오길 바라는 기도 시간임을 의미한다.

90 오마르 : 제 2대 칼리프, 무함마드가 예언자 임무를 수행한지 5년 후 이슬람에 입교한 것으로 전해짐.

예를 들면 태양이 지면 저녁예배 시간임을 의미하듯이 가뭄 또한 비를 위한 기도 시간임을 의미한다. 이 시간들에 기도를 해야한다.

예를 들면 일식 때 드리는 예배들이 있다. 이 예배들은 일식이 끝나길 바라며 드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 일식이 끝날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던 드리지 않던 일식은 끝난다. 하지만 그 경배행위들은 그 시간에 특별하다. 즉 일식은 예배 시간임을 의미한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경배행위 중 한 가지인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기도를 하면서 숭배를 한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뿐일까? 인간 이외에 기도를 하는 존재도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 꾸란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은 찬미와 자신만의 경배를 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칠천과 대지가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니
영광으로 그분을 찬미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도다.⁹¹



91 꾸란 이슬라장 17장 44절

즉 모든 피조물들은 경배를 하며 기도를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설명한다. 특히 베디웃자만(Bediüzzaman) 또한 기도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지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능력의 언어들로 행하는 모든 기도를 의미한다. 능력의 언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어떠한 능력을 내재시키셨다. 하지만 피조물은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 능력을 펼치길 바란다. 예를 들면 씨앗에는 싹이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은 발아할 길 바라며 그 잠재된 능력의 언어로 매 순간 주님께 기도를 한다. 딱 적절한 시기와 조건에서 바로 싹이 나기 시작한다.

둘째 : 본능적인 필요함의 언어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하는 기도들이다. 예를 들면 모든 피조물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해야 하는 물, 영양(양식)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한다. 만약 얻지 못한다면 삶을 영위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듯 본능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를 원한다. 물을 원하며, 양식을 원한다. 즉 그렇게 기도가 받아들여진다.

셋째 : 필요함의 언어로 행하는 기도이다. 아주 힘든 상황과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아주 간절한 기도이다. 그렇다. 바다에 빠져 부어진 나무 조각위에 겨우 몸을 기대고 있으며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바다의 거센 물결과 폭풍의 강도가 아주 잔잔히 잦아든다. 왜냐하면 그 순간 행한 기도는 아주 순수하기 때

문이다. 이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원하게 된다. 즉 그분 이외에 어느 누구도 권능이 없음을 그리고 그를 이 상태에서 구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라는 것을 안다. 그는 오로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기도를 하게 되며 이렇게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는다.

넷째 : 우리가 알고 있으며 하고 있는 기도이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기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말로 하는 기도이다.

1. 몸짓으로 하는 기도 : ‘Sünen-i Kevniye’ 라고 불리는 ‘자연의 규칙들’을 따라가면서 하는 기도들이다. 이 기도는 몸짓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땅을 일구고 가꾸며 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보물의 문을 열고 그 문으로부터 양식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즉 땅을 일구는 것 자체가 기도이다. 몸짓으로 하는 기도로 “주님! 저는 이 땅을 당신의 자비의 보물의 양식을 요구하기 위해 일구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자비의 보물을 주소서” 라는 것을 의미한다.

2. 말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 : 무척이나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얻기 어려운 것을 원할 때 하나님께 원한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조차 듣지 못한 마음속의 소리를 듣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그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으며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처럼 아주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획득할 그 어떤 힘도 없는 인간은 기도같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금고를 손에서 절대 놓지 말아야한다. 또한 이 기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높은 대화 상대’ 라는 명예를 얻게 되며 모든 피조물들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보좌관이 된다. 즉 모든 피조물들의 몸짓의 언어들로 하는 기도와 송배로 의도하며 그분에게 바친다.⁹² 이렇게 함으로 인해 보좌관이 되는 명예를 얻게 된다.

92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말씀들(Sözler), p.483, Sözler 출판사

8. 승배에서의 걸림돌과 없애는 방법

지금까지 설명한 주제들은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들과 승배를 위해 새롭게 재 정비해야 할 요소들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승배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 요소들을 주입하는 것은 승배를 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하고 빠르게 부숴버리고 파괴시킨다.

승배에 걸림돌이 되는 무척 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감정들이다. 이곳에서는 그러한 예들로 과시적인 행동, 비관함(YEIS), 자만심(UCB), 오만함, 의심, 뒷담화를 다루겠다.

이 요소들을 아주 잘 아는 것은 승배의 길에서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 더욱 더 의식적이고 지각있는 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질병들을 큰 재앙이라 표현한 알 가잘리 학자⁹³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어느 누구든 어떠한 용서를 구하더라도 자신을 구할 수 없다네.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들을 없애는 것은 의무행위이기 때문이라네. 이 또한 해당되는 질병들이 무엇인지, 원인들이 무엇인지, 증상과 약을 알아야 한다네. 왜냐하면 악을 모르는 그 어느 누구든지 그것의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네.”

93 알 가잘리 : 이란의 유명한 법학자, 신학자, 철학자로서 당대 최고의 학자

A. 과시적인 행동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는 아주 큰 질병 중 하나이다. 사람들의 맘에 들게 하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직위나 계급을 원하는 것으로써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İhlas)과 상반된다.

한 번은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무슬림 공동체에 일어날 두 가지로부터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과 감춰진 성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교우가

“하나님의 사도님이시여! 당신께서 돌아가신 후 무슬림 공동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놀라서 물어보자,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그렇다네, 그들은 태양, 달, 돌,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신이 한 행동들을 과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⁹⁴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이 하디스에서 강하게 언급하신 이러한 과시적인 행동이라는 질병이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주변 곳곳에 퍼져 있다.

⁹⁴ Ahmed b. Hanbel, Musned IV, P.124

A-1 과시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원인들

우리들의 정신적인 삶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이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신앙자로서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정신적인 삶을 치명적인 위협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내세에서 손실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경배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알고 해결 방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과시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원인들의 상황들을 알아야 한다.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Kastamonu lahikası에서 과시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3가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⁹⁵

첫 번째 원인 : 가장 위험한 것이며 이것은 바로 신앙이 약한 것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갖가지 나쁜 상황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인한 결과(인과관계)들에 돌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기대한다. 과연 이것보다 위험한 상황이 있는가? 이 세상,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무능력한 원인들로부터, 아주 약한 인간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95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카스타모누 편지(Kastamonu Lahikası), p.227-8, Sözlür 출판사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임을 많은 하디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들로부터 가장 두려운 것은 숨겨진 우상숭배입니다.”
“숨겨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도님께 물었을 때
“바로 과시적인 행동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⁹⁶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이나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앙을 강화시킬 강의들” 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다.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조물들로부터가 아닌 하나님로부터 바라기 위해서는 신앙을 강화시킬 강의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배 행위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 : 탐욕,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등이다.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피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절약과 만족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는 것 등을 얻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인 : 직위나 계급을 얻는 것,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의 감정들은 과시적인 행동에 들어 가게 한다. 바로 이러한 감정들 안에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계급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 같은 행동들에 집착하고 과시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

⁹⁶ 하디스 Ahmed, Taberani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감정들을 없애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에게겐 주님께선 쉽게 하신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 중 하나는 ‘나’ 라는 감정을 없애고 ‘우리’ 라는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아의 결점을 보고 형제, 자매들 보다 자신을 더 낮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다면 바로 그 때 승배를 할 수 있다.

A-2 과시적인 행동이 아닌 경우들이 있나?

매우 민감한 주제인 과시적인 행동은 모든 경배 행위를 할 때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과시적인 행동이 아닌 경우들도 있다. 수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알 가잘리 학자는 의무가 아닌 경배 행위들은 남 앞에서 티를 내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말하지만 예배나 금식같은 의무행위들은 그 반대로 하는 것이 더욱 더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⁹⁷.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맘 랍바니 학자⁹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의무가 아닌 경배 행위들은 남이 모르게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시적인 행동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⁹⁷ Imam-I Gazali, İhyau’Ulumu’d-Din III, p.683

⁹⁸ 이맘 랍바니 : 인도의 이슬람 학자.

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단체로 함께 드리는 것⁹⁹은 그렇지 않다. 의무경배 행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동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의무 예배들을 단체로 함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¹⁰⁰

“의무가 아닌 경배 행위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무 예배들을 드릴 때는 남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카트¹⁰¹를 줄 때는 남들이 알게 줘야 한다. 그래야만 중상모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²

이와 마찬가지로 베디웃자만(Bediüzzaman) 또한 과시적인 행동이 아닌 상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⁰³

의무 경배행위들, 이슬람의 상징인 행동들이나 표시들(히잡, 아잔 등) 그리고 죄들로부터 피하는 것 등을 남들이 알게 해도 과시적인 행동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신앙이 약한 사람이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99 예를 들면 주마 예배나 파즈르 예배를 단체로 드릴 때는 의무행위이므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없다.

100 İmam-I Rabbani, Mektubat I, p.288

101 자카트 : 무슬림은 연간 순수익의 2.5%를 종교 구빈세로 회사해야 함.

102 İmam-I Rabbani, Mektubat II, p.82

103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카스타모누 편지(Kastamonu Lahikası), p.227-8, Sözlər 출판사

의무가 아닌 경배행위들을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은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이와는 반대로 이슬람의 상징적인 행동들이나 표시들의 경배행위들 남들이 알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모르게 하는 것보다 더 좋다. 큰 죄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세상에서 하람(이슬람에서 금지시키는 것들)으로부터 피하려고 노력할 때, 타끄와¹⁰⁴를 남들이 알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아니라 오히려 큰 보상이 주어진다.

하지만 요즈음 이 중요한 요소들을 너무도 망각하거나 무시해버린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보여주는 형형 색색의 광고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남들이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해지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은 과시적인 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맘 또는 무앗진(아잔을 부르는 사람)이 꾸란을 읽을 때 남들에게 소리를 더 아름답게 들려주기 위해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매 순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하루 다섯 번 아잔 시간 이외에는 남들이 모르게 조용하게 하는 것이 더욱 사탄으로부터 피하는 길이다.

104 타끄와 :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는 데에 사용하는 것.

아부무사가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사도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하시길,

“어제 밤 예배 시 당신이 낭송한 꾸란을 듣는 나를 봤다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당신께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네”¹⁰⁵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도님! 당신이 듣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더 아름답게 낭송을 했을 텐데요...” 라는 대답에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반대하지 않으셨다. 즉 이 의미는 자신의 임무를 하는 자는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꾸란으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소리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때는 과시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다.

특히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작은 세상에서 요즈음, 아잔이나 꾸란과 같은 이슬람의 상징들, 규칙들, 원칙들을 아름답게 읽는 것은 필요하다.

A-3 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과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간혹 몇몇 사람들은 “과시적인 행동이 될까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 자아가 경배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함정에 빠짐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의무 경배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경배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

105 Buhar-ii, Fazailu'l-Kur'an, p.31: Müslim, Müsâlinir 236, p.793

에, 저것 때문에 라는 이유들로 포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었다. 우리는 경배를 꼭 해야 하지만 과시적인 행동의 질병들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알 가잘리 학자는 과시적인 행동에 대해 4가지로 분류했다. 우리가 행하는 경배행위들이나 행동들이 과시적인 행동이 되는지 시험하기 위해 이 분류들을 살펴 봐야한다.

첫 번째 : 오로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즉 과시적인 행동의 가장 낮은 단계이다.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우두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류이다.

두 번째 :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의도가 약하다. 혼자 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 한다.

세 번째 :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반 정도 의도가 있다.

네 번째 : 꾸준히 지속적으로 경배를 하는 사람이다. 혼자 있을 때도 경배를 드린다. 하지만 누가 있을 때 더욱 더 열성적으로 한다.¹⁰⁶

106 Imam i Gazali, *İhyau'Ulumi'd-Din* III, p.654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점검한다면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 것이다. 이들 중 가장 순수한 것은 네 번째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위험하다.

가장 좋은 것은 경배 행위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당연히 쉽지 않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영원한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편안함과 자신의 욕구를 조금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A-4 과시적인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알 가잘리 학자가 과시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할 때 과시적인 행동이 얼마나 나쁜 재앙인지 바로 눈앞에서 제시한다. 먼저 과시적인 행동의 원인들 그리고 과시적인 행동의 결과들에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주의시킨다.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즉시 또는 언젠가 자신을 위해 이롭거나 즐거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달콤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이 언젠가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쉽게 그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꿀은 아주 달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해를 끼치는 어떤 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 먹기를 그만둘 것입니다. 이처럼 달콤하고 즐겁다고 생각한 과시적인 행동 또한 그 안에 아주 해로움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주 쉽게 그만둘 것입니다.”

과시적인 행동을 하는 나를 볼 때 과시적인 행동의 해로움들, 상해버린 양심,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세에서의 벌, 하나님의 노여움 등을 떠올려야 한다. 그와 덧붙여 심판의 날 ‘나쁜, 죄인, 과시적인 행동을 한 사람’ 이라 불리며 자신이 호명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함과 동시에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며, 행하는 경배 행위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구걸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종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며, 칭송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하나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원했는가? 라는 물음을 창조주의 앞에서 받았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이러한 수치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면, 오로지 현세에서 사람들로 부터 얻는 이점들과 내세에서 잃게 되는 손실, 내세에서 얻게 될 보상들을 생각하게 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행한 행위는 모든 죄들을 용서할 만큼 값어치 있음을, 과시적인 행동을 위해 한 행위들은 죄로 간주되어 지옥에 가게 됨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연히 과시적인 행동을 포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자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어떠한 이득이 없음을 생각해야 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서 해야 한다.¹⁰⁷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자신을 잊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죄로 몰아넣고 결국에 자신은 빠지며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또한 “나는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다니…” 라며 희망조차 가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만약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말은 바로 불편함을 의미하며 불편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과시적인 행동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며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식하는 순간 바로 용서를 빌게 되지만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등한시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경배행위들을 행하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과시적인 행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숭배행위에 근접하게 할 것이다. 인샬라!

107 Imam i gazali, İhyau'Ulumi'd-Din III, p.671

B. 비관함(YEİS)

‘비관적인, 희망을 저버리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YEİS’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이다.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측면에서 앞서가는 데 방해를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는 승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이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 나쁘게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있다. 경배행위를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내세에서 있을 벌을 생각하면 할수록 무섭고 두려워진다. 사탄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그 사람이 비관적이게 느끼게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어하며 “만약 천사들이 없다면 기록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종교적인 주제에서 아주 조그마한 의심이 들면 이를 아주 큰 증거라고 믿기 시작한다. “천사를 누가 볼 수 있어!” 라고 하며 부정하기 시작하고 아주 작고 가벼운 책임감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며 이슬람의 율타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사탄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원한 손실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B-1 비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 하나님의 자비로 피하는 것

비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큰 방법들 중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아는 것이다. ‘희망을 저버림’과 같은 질병이 사람들을 전염시키며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게 하는, 매 순간 기회를 엿보는 사탄의 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며 가장 작은 실수 조차도 그분에게 기 대고 의지해야 함이 필요하다.

오마르가 전하기를,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포로들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 있었다. 정신없이 아이를 찾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울 때마다 자신의 젖을 먹였다. 그 때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다. 그 여인이 “아니요! 절대요!” 라고 대답하자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이 여인이 아이에게 보인 동정심, 자비로움 보다 더욱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하셨다.¹⁰⁸

108 Buhar-ii, Edeb, 19

“

나의 자비가 모든 것을 포용하나니.¹⁰⁹

”

라는 꾸란 구절과 “그분의 자비가 형벌을 넘어섰다.”라는 하디스가 그분의 자비가 끝이 없음을 말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저버린다는 것이 무슬림들에게 어울린단 말인가?

주님의 자비로움, 관대하심을 설명한 꾸란 구절과 하디스는 셀 수 없이 많다. 모두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비관함에 빠지지 말게!” 라는 말을 강조한다. 이처럼 자비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넘쳐 흐르며 이를 모든 곳으로부터 보여주는데, 사탄의 단순한 한가지 속임수, 계략에 빠져 비관하는 것이 과연 그분의 자비에 대해 예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행한 경배 행위들이 부족하며 우리가 행한 죄들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 앞에선 모래 사장의 수많은 모래 중에 한 개의 알갱이에 속하며, 태평양 바다의 한 방울도 안된다. 그분의 자비의 태평양은 우리의 쓰레기통에 있는 죄, 결점들로 더러워질 수 없다. 더군다나 만약 용서를 빌거나 뉘우친다면 그 죄들은 그분의 광대한 자비의 태평양에 이르러 아주 깨끗이 청소될 것이다.

109 꾸란 아이라프장 7장 156절

우리에게 가장 큰 희소식을 전한 꾸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일러가로되 스스로에 대하여 죄지은 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실수들을 사하여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¹¹⁰



즉 매 순간 ‘희망’이 ‘두려움’보다 먼저 앞서야 하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승배를 계속 실천해야 한다. 당연히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무서워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저버림’은 바로 살아가는 것의 적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 하고 싶은 죄를 짓지 뭐’라고 당연히 생각하면 안된다. 당연히 이러한 의도로 죄를 짓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110 꾸란 주마르장 39장 53절

C. 자만심(UCB)

아주 작디 작은 행위들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진 ‘UCB’는 비관함과 반대이다.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본인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속한 것들은 오로지 자신으로부터임을 믿는 것이다. 이는 숭배에서 무척이나 위험한 질병 중 하나이다.

자만심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경배들을 아주 잘 실행하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남들이 봤을 때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나를 징벌로부터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행위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이며 사람을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선행들, 올바른 행위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없으며 그것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의 몸, 신체조차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한 행위들 또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분의 권능의 작업대에서 예술적으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이 몸이라는 궁전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이 몸으로 행한 것들의 천 가지 중 겨우 한 가지만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그것조차도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일 중 하나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오로지 한 모금을 입으로 넣는 것뿐이고, 그런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음식 한 모금이 우리 손에 도달하기 까지이다. 두 번째는 그 한 모금을 입으로 넣고 난 후의 단계가 있다. 이 두가지 단계 모두에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그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 후에는 전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우리의 몸으로 흡수된다.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이 서로 각자의 필요한 곳에 나누고 운반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눈에 필요한 영양분은 눈꺼풀에 있는 눈물샘으로부터 얻는다. 눈꺼풀은 일분에 평균적으로 40번 깜빡이며 이 덕분에 눈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게 된다. 이 일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몸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일하는 수많은 장기들과 기관들 중에 오로지 한 가지 예인 눈꺼풀조차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그 분이 바로 그것들을 관리하신다. 우리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진짜 주인인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의 의무에 집중하여 실행하자. ‘양육하심’은 주님의 일이며 우리

의 일은 오로지 ‘숭배’ 일뿐이다.

이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나쁜 것에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시키지 말자. 나쁜 의지는 오로지 우리의 결점과 부족함을 나타나게 한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완벽함 등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나쁜 것, 죄들은 우리로부터 이다.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들은 우리를 구할 수 없다. 그분의 끝이 없는 관대하심 대신에 우리 자신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옆질러 질 수 있는, 안이 텅 빈 경배행위들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예언자)의 시선은 흠어지지 아니하고
한계를 넘지도 않더라.¹¹¹**



라고 꾸란에서 언급한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조차 “가장 좋은 숭배들의 대상인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에게 제대로 숭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찌 “내가 한 경배행위들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111 꾸란 나즈잠 53장 17절

한 번은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들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조차도요?” 라고 교우들이 묻자

“당연하지요. 만일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할 그 어떠한 것도 없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경배행위들을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항상 주님의 관대하심에 기대야 한다.

D. 오만함

오만함 속에는 부족함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과 어떤 특징들을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함을 나타낸다. 이 세상의 의무들을 잊고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질병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게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높은 성인들, 학자들이 설명한

높은 진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도 학자이고 나도 학자이다. 나도 앞서갈 수 있다.” 라고 하며 그 범주로부터 멀어진다.

하지만 그 높은 학자들은 지식을 배우고 경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24시간을 그 정신적인 삶을 위해 쓰였다. 어떤 학자는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 다니셨다.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오로지 한 가지 고민만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내세를 위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뿐이었다. 오로지 지식을 배울 생각으로 자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높은 수준에 오르신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쓸 곳이 너무나 많다. 철학적 사고들, 과학, 정치 등으로 인해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이다. 생계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 속에 자리 잡고 하나의 재앙이 되었다. 매일 매일 적게는 7,8시간을 생활비를 버느라 정신없이 보낸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보여주는 시각적인 광고들, 대중매체들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그곳으로 쏠리게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쏠리게 하는 준비된 상황을 전파시킨다.

이처럼 이곳 저곳 신경쓰고 생각할 게 많은 복잡한 머릿속으로 그 높은 학자나 성인들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노라.¹¹²

”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E. 의심

송배행위를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들 중 하나인 의심은 어떤 사람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된 요즘 사람들 사이에 퍼진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간혹 의심되는 것을 믿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음의 이야기로 설명하고자 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족제비를 발견하고 치료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그 족제비를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

112 꾸란 나흘장 16장 23절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그 족제비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 순간 주의를 기울였다. 항상 머리속에 “이 족제비가 혹시라도 아이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한번은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부인이 잠시 외출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에 족제비와 아이 단 둘만 남아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뭐 몇 분인데. 별일이 있겠어?’ 라며 외출했다. 일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족제비의 입에 피가 흠뻑 묻어져 있는 게 아닌가! 부인은 너무 놀라 바로 그 족제비를 바로 죽여 버렸다. 재빠르게 아이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아이가 아주 새근 새근 잘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놀랐다. 그리고 조금 후 자신의 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아이의 침대 주변에 갈기 갈기 찢겨진 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의심의 결과를 아주 잘 설명한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부하르, 무슬림 등의 하디스에서는 “의심을 하지 마세요! 의심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됩니다.” 라며 의심이 위험한 결과를 내리는 이유가 됨을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서로를 좋게 생각해야 한다.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상황을 보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의심이 아니라 그것이 가령 옳다 하더라도 그 결점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나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 자매에게서 보이는 한 두 가지 나쁜 점 때문에 즉시 그 사람에 대해 나쁘다고 결정을 내려 차갑게 대하는 것은 사회적인 삶을 마비시키는 이유가 된다.

주님은 알 할림(Halim)¹¹³ 이시어 바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 즉시 벌을 내렸다면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신앙인들 또한 서로에 대해 좋게 보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믿는 사람들이여 가능한 의심을 피하라.
어떤 일에 있어서 의심은 하나의 죄악이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말며 서로가 서로를
협담하지 말라.¹¹⁴



주님께서는 꾸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며 의심을 못하게 하신다. 형제, 자매에 대해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이 가령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피하라고 명령하신다.

또한 의심이 들 만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의심되는 상황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부하르가 전하길,

한번은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부인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던 젊은이들에게

113 알 할림 (Halim) :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99가지 중 한 가지.

참고 늦추시는 분 : 그분은 죄에 대한 벌을 서두르지 않으시며 기다리신다.

114 꾸란 후주라트 49장 12절 중 일부

“이 사람은 나의 와이프 사피에라네” 라고 하자,
 “사도님, 저희가 의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다. 그리고는
 “사탄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모든 몸을 돌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¹¹⁵ 라고 대답하시며 의심이 드는 상황을 없애셨다.

E-1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하셨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다. 때때로 욕구를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고려해 다가가야 한다.

한 번 생각해 보자. 의심이 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또는 의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혀 하지 않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어떨까? 매 순간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본다면 더욱 명확하게 양심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더 공감하며 우리 스스로를 의심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살라!

115 Buhar-i, Ahkam 21

그 다음으로는 의심의 질병에 맞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약을 처방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 졌을 때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항상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는 매 순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을 명령하며 의심으로부터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주의를 준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서로 서로를 결속시키고 반대로 의심은 서로에게 불안을 조장하며 타락하게 만드는 씨앗을 품고 있다.

F. 뒷담화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뒷담화! 숭배를 할 때 아주 커다란 방해물이라는 것에는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들을 헛되이 하게 하는 하나의 재앙이다. 숭배라는 기나 긴 마라톤에서 뒷담화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그 자리에 멈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몇 백 미터 더 후퇴하게 만든다.

뒷담화란 어느 누군가에 대해 뒤에서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맘에 안 드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다면 바로 그것은 뒷담화임을 의미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뒷담화의 범주를 넘어서 중상모략이 되며 이는 더욱 위험하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무엇이 뒷담화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묻자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뒷담화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하였고, 이 말에 한 교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여, 정말 그 사람에게 그런 점이 있다면 무엇이러 말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를 뒷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를 중상모략하는 것이 됩니다.”¹¹⁶

116 아부후라이가 전하는 하디스

F-1 뒷담화는 의심의 다음 단계이다.

주님께서는 꾸란에서 아주 강력하게 뒷담화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믿는 사람들이여 가능한 의심을 피하라
어떤 일에 있어서 의심은 하나의 죄악이니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조사하지 말며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지 말라.¹¹⁷



이 꾸란 구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혹 우리의 자아에 장악당해 다른 사람의 잘 알지 못하는 잘못이나 결점을 조사하더라도 또는 설사 죄를 짓는 것을 알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리거나 뒷담화 하지 마라!”라며 아주 강력하게 금지시키신다.

F-2 뒷담화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전염병이다.

뒷담화는 사회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만큼 무서운 질병이다. 사람들 사이에 ‘험담’이라 불리는 뒷담화는 우리가 사는 이

¹¹⁷ 꾸란 후주라트 49장 12절 중 일부

사회에서 무척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뒷담화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이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A가 이렇게 말했어. B가 그렇게 했으며. C가 왔으며… D가 직장에서 짤렸대” 등 대부분의 이야기 주제가 남들 이야기 위주로 흘러간다.

단순히 두 명, 세 명 모이면 하는게 아니라 글에서도, 대중매체에서도 아주 쉽게,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바로 ‘집단 뒷담화’가 된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중매체는 팔로워들, 대중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과 비밀들을 모든 대중들에게 알려주며 “A가 이렇게 했네, B가 저렇게 했네”라고 광고한다. 이것이 뒷담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몇 시간이고 시청하며 “그러니까 A가 이렇게 했구만… 그게 인간이야?”라고 한다. 그 당사자는 이 세상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뒷담화는 사회를 죽게 할 만큼 위험한 영향을 끼친다. 그 사람이 행한 나쁜 행동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며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죄인’이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회피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며 그 사람을 보기조차 꺼려한다.

상황이 사람들 사이에 더 심각하게 퍼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

자. 모두 서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서로 서로 믿지 않게 되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뒷담화의 위험을 막기 위해 꾸란에서 뒷담화를 아주 강력하고 확실하게 금지시킨다.



믿는 사람들이여 가능한 의심을 피하라.

어떤 일에 있어서의 의심은 하나의 죄악이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말며

서로가 서로를 헐담하지 말라.

너희중에 죽은 형제의 살을 먹고자 하는자는 아무도 없노라.

실로 너희는 그것을 증오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¹¹⁸



뒷담화는 죽은 형제의 살을 먹는 것처럼 아주 징그러운 일이다. 뒷담화를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면 뒷담화를 하는 순간 입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을 했는지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아미르가 전하는 하디스에 의하면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죽은 당나귀 새끼의 옆을 지나치실 때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18 꾸란 후주라트 49장 12절 중 일부

“배가 부를 때까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것이 당연히 무슬림 형제의 고기를 먹는 것(뒷담화를 하는것)보다 더 나옴이라”

F-3 뒷담화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들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인 경우 그 즉시 응급 처치에 들어간다. 이 때 정상적인 절차들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처럼 뒷담화 또한 정신적인 삶의 위급한 상황처럼, 위협하는 그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질병이다. 정신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하나의 신호이다. 내세를 위해 필요한 많은 보상들을 텅 비게 하는 재앙이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교우들이 말하길,

“저희 중에 파산한 자는 돈을 가진 자도 아니고 재물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이에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공동체에서 말한 파산한 자는 예배와 단식을 근행하고 회사를 하지만 타인을 욕하고, 간음했다고 비방하고, 불법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살해하거나 구타하여 심판의 날 자신의 선행

이 모두 사라졌음을 알게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대신 받게 되는데, 만일 선행이 그들에게 행한 악행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죄가 그에게 부과되니 그는 불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¹¹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만약 이러한 상황에 그 어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에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구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파산한 자를 지옥으로 던져라!” 라고 하신 후, 어느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일 초라도 한 번 자신이 이 상황이라고 생각 해보자.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란 말인가!

나를 마음에 안들어 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뒷담화 하며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뒷담화는 안 좋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을 보상이 나에게로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뒷담화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알 가잘리학자의 책에서 언급한 하산바사르¹²⁰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자신에 대해 뒷담화를 한 상대에게 대추야자 한 접시를 보냈다.

119 하디스 Muslim, Birr, 59: Tirmiz-i, Kıymet, 2

120 하산바사르 : 예언자와 함께 베디르 전쟁에 참가한 교우 중 한 명

그리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이 메세지를 적으셨다.

“내가 듣기론 당신이 행한 경배가 나에게 선물로 왔다고 들었네. 나 또한 이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보내고 싶다네. 하지만 내가 받은 만큼을 돌려줄 수 없으니 미안할 뿐이네.”

F-4 뒷담화를 하는 분위기라면 그 즉시 벗어나야 한다.

뒷담화를 하는 분위기에 있다면 해야 할 것은 부드러운 말로 주의를 주고 그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그 다음 그 뒷담화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된다. 만약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곳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 뒷담화를 듣는 사람, 뒷담화를 그만 두도록 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 말씀하시길,

“누군가 무슬림 형제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면 그것을 막을 것을 권고합니다.”¹²¹

알리(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를)¹²² 께서도

“뒷담화를 듣는 사람은, 뒷담화를 하는 것과 같다.”¹²³ 라고 하셨습니다.

121 Gamīu's-Sağır, Hadis No:8489

122 알리 : 예언자의 사촌 동생이자 사위인 제 4대 정통 칼리프

123 Mizanü'l-Hikme 7,352

즉 매 순간, 매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여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신앙자로서의 의무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떨감을 불에 태우듯이 우리가 한 행동들도 그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F-5 뒷담화로 보지 않는 상황이 있는가?

베디웃자만(Bediüzzaman)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이 특별한 상황 이외에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뒷담화이다.¹²⁴

첫 번째 :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제에 대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 만일 어떤 사람이 동업을 같이 할 동업자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동업자에 대한 결점들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같이 일을 해서 힘들 것 같다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과 동업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네” 라고 말할 수 있다.

124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편지들(Mektubat), p.391-2

세 번째 : 만약 어떤 사람의 별명이 유명하지만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 헛갈린다면 그 별명을 이야기해도 된다. 여기서의 목적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지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를 들면 “그 통통한 사람이 거기에 갔다” 처럼 말이다.

네 번째: ‘fasik i mutecahir’ 즉 ‘죄를 짓거나 나쁜 행동을 하고도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뒷담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fasik i mutecahir는 자신이 행한 나쁜 죄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며 자신이 행한 억압적인 일들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대놓고 죄를 짓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나 손해를 보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fasik i mutecahir’이 한 행동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뒷담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fasik i mutecahir’의 기준에 부합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모든 죄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죄)에 대해 후회를 느낀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뒷담화에 해당된다.

이 4가지 상황 이외의 경우는 뒷담화이다.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께서는 “장작을 불에 던져 태우는 것보다 더 빨리, 뒷담화는 인간이 행한 선행을 지웁니다.” 라는 경고와 함께 우리의 선행은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뒷담화를 했다면 또는 원하면서 들었다면 그 때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뒷담화의 상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 후 뒷담화 상대를 만났을 때는 “나를 용서하세요” 라고 해야 한다.

9. 숭배와 이슬람의 전달 및 모범임무

무슬림으로서 정해진 책무들이 있다. 이슬람에서 정해진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시에 숭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아주 높은 수준의 숭배에 해당된다. 어찌하여 이것이 숭배란 말인가? 왜냐하면 몸짓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타인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구하는 수단이 되며 신앙인들의 신앙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실행할 때 아주 순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말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은 사람들이 쉽게 느낀다. 즉 모든 신앙인들은 진리를 아주 잘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들을 잘 알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위험성으로부터 막기 위함이다. 즉 항상 진리를 알며 매 순간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높은 숭배의 가장 좋은 예는 누구일까?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당연히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이시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 남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정직하고 솔직한 몸짓과 행동들로 가득한 태도를 보여주셔서, 우상

송배자들조차 그를 믿을 만한 사람 즉 절대 거짓말과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를 신뢰하고 믿음을 의미하는 무함마드라 불렀다.

그는 이슬람이 계시되고 난 후 내려진 모든 명령들을 먼저 본인이 실천하셨다. 밤부터 아침까지 예배를 드리셨으며 단식을 하시는 등 경배를 하셨다. 그 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할 것을 원하셨다. 전쟁이 있을 때는 먼저 제일 먼저 앞에 나가셨고 그 후 지하드나 용감함 등을 설명하셨다. 설명하실 때는 아주 조그마한 주저함도 없으셨다. 모든 것을 자신이 먼저 실행하신 후 그것이 옳음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말은 강력한 효과를 지니게 됐다. 이 숭고하고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의 초대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서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때에는 집, 처자식, 친구, 재산을 버리고 그분의 옆에 달려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분의 진실됨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실행하지 않으신 것은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모범을 보이시며 종교를 전달하셨다.

전달하는 것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오로지 설명하면서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이다. 어쩌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예언자의 예에 부합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오로지 설명하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경우 사람들에게 건조한 지식을

전달하게 된다. 그 지식은 마음까지 전달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꾸란에서



너희는 성서를 낭독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명령하면서
너희 자신들은 망각하고 있느냐?¹²⁵

너희가 행하지 아니 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느냐.¹²⁶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이다. 베디웃자만(Bediüzzaman Said Nursi)은 이 내용에 대해서 Hutbe i Samiye라 불리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우리가 이슬람이 우리에게 원하는 도덕적 품성과 신앙의 진리가 가진 아름다움들을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보여준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룹으로 이슬람에 입교할 것이며 더 나아가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도 이슬람에 입교할 것이다.”¹²⁷

125 꾸란 바카라장 2장44절

126 꾸란 사프장 61장2절

127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Hutbe-i Şamiye, p:538, Sözlür 출판사

청결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청결함의 좋은 점들을 말한다면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담배의 해로움을 설명하는 의사가 말이 끝나자 마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방을 나간다면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담배가 미치는 해로움에 대해 이해한다. 하지만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사도 피우는 걸 보면 그렇게 엄청 해로운 건 아닌가 봐” 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도 피우기 시작한다.

종교를 전달하는 사람 또한 만약 자신이 한 이야기들을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냥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가 봐” 라며 잘못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이로움을 주기보단 해로움을 주게 되며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길!

9세기 말과 10세기 초에 살았던 높은 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이맘 마투리디학자는 지식은 오로지 행동과 실천을 할 때 비로소 이로운 지식이 된다고 설명한다. 현세와 내세를 위해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정의한다. “진리는 지식과 실천을 함께 포함한다” 라고 하시며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진리’ 임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현명한’ 이라 부른다.¹²⁸

128 Hanifi Özcan, Matürîdî’de Bilgi Problemi, p.156-157, Marmara Üni. İlahiyat Fakültesi Yay, İst. 1993



어느 누군가에게 지혜를 알려 주신다면
즉 그에게 아주 많은 은혜를 주심이라.¹²⁹



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대접을 받는 자는 지혜의 가장 기본 의미인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된다. 그는 이슬람의 아름다움을 말로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즉 자신이 한 말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과 함께 이슬람의 아름다움들이 비춰진다면 그것은 바로 전달의 의무를 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 아름다움의 매력이 흘러 주변 사람들을 끌어 모으게 하며 이 아름다움의 원천을 배우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전달의 기회이며 가장 아름다운 숭배이다.

이 사실로 인해 이슬람의 높은 성인들, 학자들은 자신들이 행하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셨다. ‘올바른 것’ 이라고 할 때 입에서 나온 말들이 거짓임을 말하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주의를 기울

129 꾸란 바카라장 2장 44절

이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을 아는 자들은 그들 주변에 나방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들과 보내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 성인들, 학자들은 자만심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진리들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셨다. 이슬람의 아름다움들을 스스로 실천하며 보여주셨다. 바로 그 때 진리들은 인간의 머리에 반영되며 마음 속에 자리잡기 시작한다.

이러한 높은 성인들 중 한 분이신 메블라나께서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계속 숭배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종들은 자유가 주어지면 행복하다지만,

나는 당신에게 종이 되었으므로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며 종의 달콤함을 표현하셨다. 그는 일생을 이 원칙으로 보내셨으며 진리를 직접 실천하시며 설명하셨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만족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모든 행동을 하셨다. 즉 바로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행한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쳐 지금 세상 모든 곳에서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이 걸어오신 길을 걸어간다. 이러한 순수함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높은 학자들 중 한 분은 베디웃자만(Bediüzzaman Said Nursi)이다. 1926년에 터키 발라라는 지역에 유배되어 보내졌을 때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분 옆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분의 몸짓, 행동, 실천으로 설명하신 진리들을 본 사람들은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옆에 나방처럼 몰려 들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설명하신 것은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주제를 자신의 전 삶을 통해 직접 실천하며 설명하셨다. 그분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펜을 드시고 유언을 남기셨다. “진리가 오로지 말하는 자이다.(Konuşan Yalnız Hakikattir.)”라는 제목의 리살레이누르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다. 이 글을 주의 깊게 본다면 왜 모범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에 이 글을 첨가하고자 한다.

말하는 자가 오로지 진리이다.

(Konuşan Yalnız Hakikattir.)¹³⁰

리살레이누르에서 증명했듯이, 간혹 억압 안에 공평함이 내포되어 있다. 즉 사람은 어떠한 원인들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곤경에 빠져 재판を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들은 부당한 대우가 되며, 이 판결은 한 가지의 억압이 된다. 하지만 이 상황은 공평함을 보여주는 데에 공헌한다. Kader-i İlahi(하나님의 신성한 결정)는 어떤 이유로 인해 벌이나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을 이번에는 어떤 불공평한 사람으로 인해 벌을 받게 하거나 고난을 겪게 한다. 이는 Adalet-i ilahi(하나님의 신성한 공평)의 한 가지 징후이다.

생각해 보니, 28년 동안 저 도시에서 이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유배를 당하고 있으며 이런 저런 재판을 수도 없이 받고 있다.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억압을 한 사람들이 행한 죄가 무엇인가? 내가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서 인가? 하지만 그들은 이를 왜 증명하지 못한단 말인가?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법원은 몇 달, 몇 년 동안 나에게 죄를 씌워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애썼다. 그 법원이 그만 두면 또 다른 법원이 같은 이유

130 리살레이누르 모음집 중 에미르다그 편지들(Emirdağı Lahikası), p.452, Sözler 출판사

로 나에게 또 다시 재판을 받게 하였다.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그 법원도 갖은 애를 쓰면서 나를 힘들게 했고, 이런 저런 갖은 종류의 억압을 가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만 두었다. 또 다시 세 번째 다른 법원이 나를 잡아 꼬치꼬치 물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들과 역경들로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 28년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보냈다. 나에게 덮어 씌운 죄명이 사실이 아님을 결국은 그들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알면서 했나, 아니면 아무 근거도 없는 의심 때문에 그렇게 했나? 알면서 했던 의심하면서 했던지 간에, 내가 이러한 죄와 관계가 없음을 확실하게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리고 양심적으로 나는 안다. 종교를 정치에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 또한 알고 있다. 게다가 나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운 사람들조차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 억압을 계속하는 것일까? 왜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러한 억압과 끊임없는 고문들을 당하는 것일까? 왜 이러한 고난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러한 상황이 Adalet-i ilahi(하나님의 신성한 공평)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25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왜 그들이 나에게 억압과 고문들을 행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다. 나는 완전히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의 죄는 꾸란에 대한 사역을 물질과 정신의 발전과 성숙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고 느끼게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오랜 기간동안 나의 의지와 반대로 신앙에 대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물질 또는 정신의 획득, 형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행복 그리고 그 어떤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정신적인 강한 장애물들이 나를 못하게 막았다.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실된 느낌들과 영감들은 나를 무척이나 놀라게 했다. 모두가 바라는 정신적인 직책과 내세에 관련된 행복들을 선행으로 얻는 것 그리고 이런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것은 허용된 권리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만족과 함께 본능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의무에 따라서, 오로지 그리고 오로지 신앙에 대한 사역만이 나에게 보였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는 모든 목적의 최상위인 신앙의 진리들을 본능적인 숭배로, 모르는 사람들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신앙을 구할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들조차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방식으로, 즉 그 어떤 것에도 이용되지 않을 방식으로 꾸란의 메세지를 전달해야 절대적인 불신앙과 고집이 센 타락함을 깨뜨리고 모두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도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종교가 그 어떤 개인적인, 내세와 현세에 관련된, 물질과 정신적인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komitecilik¹³¹ 그리고 cemiyetcilik¹³² 때문에 발생하는 공포스러운 무신론의 독자성에 반대하는 가장 높은 정신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의심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을 생각이 있는 고집이 센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저 사람은 자신의 천재성과 높은 직책을 이용하며 우리를 속였다.” 라는 생각하면서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수천 번 감사하는데 28년 동안 “종교를 정치를 위해 이용한다” 라는 고발로 Kader-i İlahi(하나님의 신성한 결정)가 나의 의지와 반대로 종교를 그 어떤 개인적인 것에 이용하지 않도록 인간의 억압의 손으로 나의 뺨을 때리게 하시며 완전한 공평으로 경고하셨다. “주의하라! 신앙의 진리들을 본인의 개인적인 것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래야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로지 진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이해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의심과 사탄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131 Komitecilik: 사회주의에 근간한 조직 주의, 단체 주의, 조직 또는 단체 위주의 생활 방식

132 Cemiyetcilik: 사회주의에 근간한 공동체 주의

이처럼 리살레이누르의 광활한 바다의 커다란 파도처럼 마음을 들뜨게 하며, 마음과 영혼에 미치는 비밀은 바로 이것이며 다른 것이 아니다. 리살레이누르에서 언급한 진실들은 수천명의 명망 있는 학자들과 수천권의 책에서 더 유창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불신앙을 멈추지 못한다. 절대적인 불신앙에 대적하는 게 이렇듯 힘이 드는 상황에서, 리살레이누르가 이토록 효과를 미친다면 그것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사이드(저자)는 없으며, 사이드의 능력과 실력도 없다. 말하는 자는 진리이다. 말하자면 신앙의 진리이다.

진리의 빛이 신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을 위해 한 명의 사이드가 아니라 수천명의 사이드가 희생하겠다. 내가 28년 동안 받은 억압, 압박, 고통, 고문 그리고 고난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나를 억압한 사람들, 나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유배시킨 사람들, 희롱한 사람들, 갖가지 수많은 죄명으로 판결을 내리길 원하는 사람들, 감옥에서 나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용서한다.

공평한 운명에게도 말하는데,
“나는 당신의 애정이 깃든 뺨을 맞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꽤나 옳고 해가 없는 그 길을 따라가며 개인적인 것들을 생각했더라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발전의 느낌들을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신앙을 위한 사역활동에서 이 높은 정신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희생했으며 모든 고난들을 겪었으며 모든 고문들에 대해 인내했습니다.

덕분에 신앙의 진리가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그로 인해 리살레이누르를 배우는 학교에서 수백 아니 오히려 수천만 명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길에서 신앙을 위한 사역활동을 그들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적 또는 정신적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많은 제자들 또한 갖가지 수많은 고난들로, 억압이나 고통들을 당했으며 힘든 시험을 겪었다. 나처럼 그들 또한 모든 부당함과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을 용서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들은 Kader-i İlahi(하나님의 신성한 결정)의 비밀을 모르면서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투쟁 즉 신앙의 진리들을 열리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무는 그들을 위해 오로지 올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억압이나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대해 리살레이누르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티끌만큼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들에 맞서 리살레이누르에 대한 충실함과 인내심으로 일하기를 권한다.

무척이나 많이 아파서 쓸 힘도, 말할 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다. Medresetü'z - Zehra¹³³ 의 리살레이누르를 읽는 사람들은 이 유언을 잊지 않기를...

133 Medresetü'z - Zehra : 저자가 설립하고 싶어했던 터키 동부지역의 종교와 과학을 함께 가르치는 대학교. 후에 사이드 누르시는 리살레이누르 모음집이 바로 이 대학교와 같고,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바로 학생이라 말한다.

